교 시

진 리
평 화
자 유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발 행 소 : 전주시 효자동 3가 1200번지
전 주 대 신 문 사
전 화 : 편집국 220-2442
운영실 220-2441

발행인겸 편집인 이종익 / 주간 원한식 / 편집국장 최경주 (1986년 8월 27일 문공부 등록 다-410)

THE JEONJU UNIVERSITY PRESS 1996년 9월 23일 (월요일)[주간] 〈제 497 호〉 1

지/면/안/내

2 학생복지 요구안 중간 평가

올해 등록금 18.95% 협상에 따른 80여가지 요구사항중 40여가지가 실현되었다. 요구안중 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제·F학점 재수강시 재기재등은 실현되었고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협상중이다.

3 식용쌀 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농민들의 반발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우의 현지 법인을 통해 우리쌀의 5분의 1수준 가격인 쌀 수입을 강행하였다.

4 인터넷 서비스 활용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기능으로는 전자우편, 텔넷, 유즈넷, 월드 와이드 웹 등이 있다. 그중 우리대학 전자계산소 시스템을 통한 전자우편 서비스로 설명한다.

5 학생처, 총학과의 간담회

본사와 EBS 주관으로 김용선 학생처장과 김대윤 총학생회장의 간담회가 19일 학생처에서 있었다. 이날 하반기 제1차 전학 전학대회에서 선출된 선관위와 피선거권 학점 규제 문제를 논의했다.

6 호남의 금석④

–호국의 간성, 산성의 금석문을 찾아서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여 산에 축조했던 산성의 금석문을 찾아본다.

7 대학종합평가 인정제 대비 간담회

98년 10월에 있을 우리대학의 대학종합 평가를 두고 지난 20일 멀티미어실과 교수 연구동 8층 세미나실에서 '대학종합평가 인정제 대비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평가대비사항 항목을 작성하고 앞으로 있을 평가에 대비하게 된다.

8 삶이 담긴 책

A Changing Nation in a Changing world의 책을 소개한다.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변화하는 나라로 자리를 잡아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인에 관련된 글들을 묶어놓은 책이다.

알 림

추석연휴와 중간고사 기간으로 인하여 498호 신문이 10월 21일자로 발행됨을 알립니다.

선관위 구성, 전학대회로 위임

학생과 "선관위 재구성·학점규제"주장

"학생총회 위상 무시한 처사" 총 학

그동안 문제가 있던 것으로 지적되어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구성과 피선거권 학점 규제 문제가 10월 초에 있을 전학대회 결정으로 위임됐다. 이것은 본사(편집국장:최경주 일어교육·3)와 EBS(강동균 생물·3)의 주관으로 지난 19일에 열린 김용선 학생처장과 김대윤 총학생회장의 간담회에서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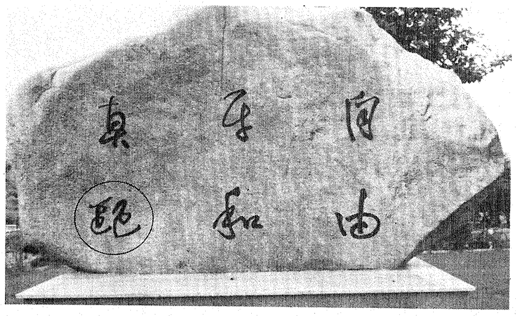
〈관련기사 5면〉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일 열린 하반기 제1차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선관위 선출안건을 두고 학생과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열리게 된 것으로, 인준된 선관위 구성을 살펴보면 위원장에 김대윤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중앙위 3인, 일반 전학대회 위원 17인이다.

이 사항에 대해 김용선 학생처장은 "다음 연도 총학 간부와 단과대 학생간부를 뽑는 선거에 현 총학과 단과대 학생 간부가 선관위로 선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히고 "피선거권과 관계없는 학생이 선관위원이 되어야 한다"며 학생회칙 개정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한 피선거권에 학점 제한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대윤 총학생회장은 "지난 3·27 학생총회에서 인준된 학생회칙에 준하여 선출한 선관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학생과가 학생총회 및 전학대회의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이다"고 반박했으며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선관위 선출과 학점 규제 철폐에 문제제기를 한다면 대중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수정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김용선 학생처장은 "전학대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여 선거시행세칙을 바꿔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으나 김대윤 총학생회장은 "학생회칙은 학생총회를 통해 개정여부를 결정하는 것" 이라며 "그러나 학생과에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만큼 전학대회를 열어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논의·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합의 내용에 따라 총학생회는 지난 19일 전학대회 소집을 긴급 발의했으며 선관위 선출과 학점규제를 안건으로 채택했다.

〈최경주기자〉



캠퍼스 라이프

왜 안 고치나?

본보 491호(96년 6월 3일자) 2면 포커스란에 실렸던 '거꾸로 된 교시' 기사가 보도된지 3개월이 넘도록 학교에서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학교의 자존심을 언제까지 거꾸로 매달아 놓기만 할 것인가?

〈글·사진:사진부〉

보도단신

박상민동문, 공인회계사 합격

우리대학 박상민(91년 졸, 회계)동문이 '제31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했다.

이로써 92년에 합격한 김삼현(회계학과 졸)동문, 95년에 한진희(회계학과 졸)동문에 이어 지금까지 우리대학은 3명의 공인회계사를 배출했다.

박상민 동문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지난 7월 4, 5일에 재정경제원산하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 감사관리과에서 주관한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우리대학 3명과 같이 응시하여 1차 합격자 1천5백명과 경쟁을 벌여 합격했다. 전남북 지역에서는 우리대학 1명을 포함하여, 전북대 2명, 전남대 3명이 합격했고 특히 우리대학은 호남지역의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합격했다.

또한 박준완(회계학과)교수는 "우리대학에서 본격적으로 공인회계사가 배출됨에 따라, 우리대학의 위상이 본격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며 "2년 연속 공인회계사 합격을 계기로, 우수학생 특차선발, 공인회계사 육성장학금, 회계학과 특성학과 지정, 경상대 고시반 확대 등 학교당국의 거교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한편, 회계학과와 경상대 고시반은 공인회계사 합격생을 늘리기위한 방안으로 오는 10월 18일에 공인회계사 오리엔테이션, 우리대학 출신 공인회계사 및 동문초청간담회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공대 실습동 완공

시설관리과(과장:배영치)의 관할아래 지난 1월 22일부터 준공에 들어간 이공대 실습동 공사가 7개월 간의 공사기간을 걸쳐 지난 8월 28일에 완공돼 전주시청의 건물사용검사 중에 있다.

이공대 학생들이 제대로된 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마련을 위한 이번 공사는 건물내부가 건축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등의 이공학과 실습실로 구성되어 있어 각 과마다 개별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9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어진 이공대 실습동은 연건평 4백35평의 단층건물로서 환경사업의 일환으로 20대가량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 건물 앞길은 아스팔트로 길을 닦아놓았다.

현재 전주시청에 건물사용 검사를 신청해 논 상태이고 앞으로 사용허가와 실습기자재, 수업비품등이 완비되어야 실습동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학과 교수들이 실습기자재 보고안을 작성중에 있다.

〈취재부〉

무관잡기

남을 먼저 생각하는 미덕은?

▲국회의원 아들이 호화판 결혼식을 했다 하여 시민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거기에다 일부 국회의원은 외유를 통해 과소비를 하여 시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시민의 대표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청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과소비를 부추긴다면 시민들 중 과연 누가 따르겠는가? 국회의원들이 '과소비를 하지 맙시다'고 외친다면 시민들은 콧방귀 뀔게 불을 보듯 뻔하다.

▲"황희정승이 계란 하나라도 받으려 하지 않자 한 농민이 몰래 계란을 놓고 가는 바람에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두다가 나중에 먹으려 했으나 썩어 버렸다"는 이야기는 모든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만하다. 청렴함과 남의 눈치를 보아야 꼭 행동을 하고 남의 눈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국회의원들의 행동보다는 얼마나 떳떳하고 아름다운가!

▲지난번 전주대신문 496호에서는 '기본 질서를 지키자'는 우리의 주장을 기사화 한 바있다. 강의실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커피잔 및 종이 부스러기, 담배꽁초 등으로 더렵혀져 있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차량이용자들의 기본 질서위반은 이미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관대로 공부하고 난뒤 버리고 간 쓰레기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치워져야 했다. 미화원아주머니들이 청소하고 있음에도 아무렇게나 버리는 학생들까지 있어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우리는 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뒤처리를 하지 않아 흘린 자국이 남아있어 그 자리에 앉자 있기를 꺼리는 경험도 했을 것이다. 커피 자판기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얼룩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업주들이 물건만 넣지 청소를 하지 않아 고약한 냄새까지 풍긴곳도 있다. 정수기가 있는 장소는 밑바닥에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 곳도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를 너무나 지나치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남이 있는 곳에서만 양심 있는 체 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이제는 버리도록 노력하자. 서로가 조그만 남을 생각해주고 기초 질서를 지켜 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대학생활을 할게 아니겠는가! 우리 학교는 남이 대신 가꿔주는 것은 아니다. 바로 우리자신이 가꿔나가야 할 터전이요 배움의 전당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남보다 자기자신의 일신을 위해서만 행동한다면 우리는 미꾸라지일수밖에 없다. 속담에도 있지 않은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리게 한다고" 우리가 미꾸라지가 되기 전에 다른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음덕(陰德)을 기르도록 하자. 보이지 않는곳에서 덕을 행사하는 행동, 이게 바로 기초질서회복의 가장 좋은밑거름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두원기자〉

전주대신문 지령 500호 기념

제20회 백마 학술문학상 현상공모

그동안 매년 5월중에 우리대학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던 백마학술 문학상이 올해는 전주대 신문 지령 500호 기념을 맞아 그 격을 높여 전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우리대학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마감은 95년 10월 1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모집부문

시(3편 이상)

단편소설(원고지 기준 70매 내외)

수 필(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논 문(원고지 기준 70매 내외)

※논문주제– • 한국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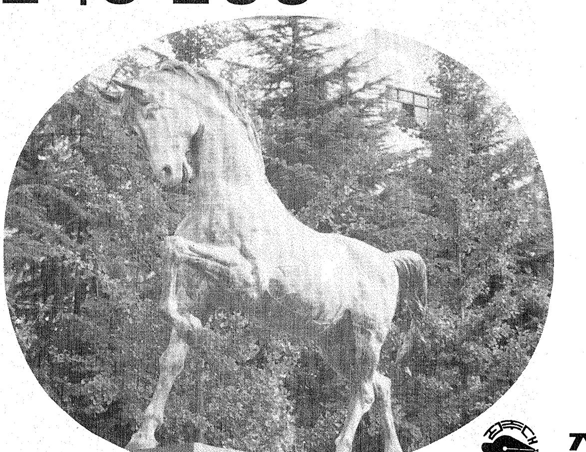
• 교육시장 개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민족교육 살리는 방향

• 기타 다른 주제도 가능

◆특히 올해는 지령 500호 기획사업으로 그동안 당선되었던 작품을 엮어 책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문의:전주대 신문사(☎ 220-2442)



고향변주곡 I
–귀향

오교정 (동문·국어국문 85학번)

새벽이 깔린다. 어둠을 거두며
파르스름한 바람이
출렁인다. 방황의 언저리를
돌아오는 발등께나
조금 남아 있는 촉촉한 어둠.
도시의 구석에서
찌그러진 깡통이나 쓰레기 더미로
떠돌던 생활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지만
해토머리 지나 보리밭은
더우 푸르러가로
귀향의 발걸음은 가벼워진다.

기다림이 팽팽한
설렁줄로 아침을 깨운다.
서리 덮인 마당을
맨발로 달려 나오신 어머니
현실로 돌아온 꿈이
믿기지 않는듯
꿈이 아니길 바라는 듯
멍하니 계시다가
맑은 햇살로 감싸주신다.
문득,
허기진 의식 속으로
내려앉는 사랑의 하늘이여.

〈제12회 백마학술·문학상 시부문 당선작〉

전주대신문사

우리의 주장

또 해냈다

지난 해 우리 전주대학교 출신이 처음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쾌거 에 이어서 올해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추석 한가 위의 달만큼이나 우리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공인회계사라면 사법 고시나 행정고시와 같이 이름있는 경제고시가 아닌가. 그렇게 어렵고도 힘들기로 소문난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말은, 그것도 호남 지역을 통털어 사립대학 가운데는 우리 전주대학교 출신만이 합격했다는 것은 분명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한다. 아직도 적지않은 교직원과 학생들 가운데는 우리 전주대학교가 그렇고 그런 지방대학이라고 폴죽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전주대인들은 자신감과 자신을 긍정하는 사고로 소리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곰곰이 되돌아 보아야 한다. 작년에 합격한 행정고시와 올해에 합격한 공인회계사 시험의 쾌거는 아무리 여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개인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꿋꿋하게 노력만 하면 못할 게 없다는 것을 보여준 본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그리고 쓸 데없는 일에 청춘을 낭비하는 사이에 어디에선가는 말없이 우리 전주대학교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그리곤 앞서간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하기로는 학교당국도 마찬가지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중요한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당국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는가. 운동선수들을 위해서는 영광의 집까지 지워주면서 엄청난 지원을 하는 학교당국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비롯한 국가고시를 준비 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나 지원에는 얼마나 인색한지를 학교당국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이다. 전국체전만이 학교의 이름을 빛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에 뒤진 생각이 아닐 수 없다. 힘들기로 말하면, 그래서 학교의 이름을 빛내는 일로 말하면 운동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각종 국가고시의 합격이라는 것을 학교당국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정보사회에서 국력은 체력이 아 니라 지식과 정보임을 알아야 한다.

지도인가 간섭인가?

거두절미(去頭截尾)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전주대학교의 기관 가운데 학생처만큼 일이 많고 힘든 곳이 없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 이다. 더구나 일의 성격상 학생처와 자주 만나야 하는 우리 신문사의 처지에서 볼 때 학생처장을 비롯한 학생과 직원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로 안쓰럽기까지 하다. 일선부서에서 근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갖 궂은 일을 해야 하는 게 학생처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학생처에서 하는 일이 모두 옳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학생처 사람들이 들으면 섭섭할는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든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충고를 하고 싶다. 우리 신문사의 경우만을 보자. 학생처장을 비롯해 몇몇 직원들은 툭 하면 기자들을 불러 '협조당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때로는 '지도'라는 이름으로 신문사의 기사를 쓰는 일까지 부탁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와 부탁이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처는 더 적극 적인 자세로 지도하고 부탁해서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대학문화를 창달 하고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그야말로 우리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지도를 받거나 부탁을 받는 기자가 위압감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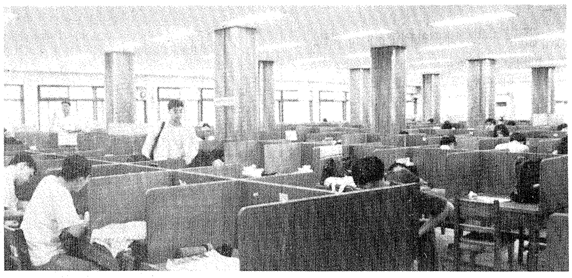
우리 신문사 기자들이 하소연하는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학생처는 학생지도라는 일들이 모두 온당한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기 바란다. 학생처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기관'의 냄새도 피워서는 안되고,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월권'의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학생 처의 지도와 부탁을 고맙게 여기는 것은 학생처가 우리 학생들의 어려움을 도맡아 해결해주기 때문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학생처의 눈물겨운 노력과 지도에 고마움을 보낸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처가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지도'를 받는 사람이 '간섭'을 받는다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오해 하면 모든 게 허사이기 때문이다.

◇학생복지 요구안 중간평가

F학점 재수강시 정정기재, 내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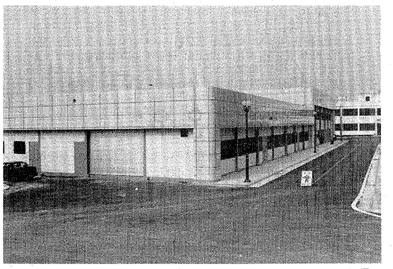
봉사활동 학점제등 40여항목 합의… 냉정한 평가 필요



〈열람실 조명시설 확대 및 그림자 방지를 위한 재배치 요구로 인해 더많은 형광등을 설치하여 밝은 분위기를 자아내게 했다.〉

학생복지요구안은 학년 초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학생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학교 측과 합의한 당해년도 교육개선안 이다. 올해도 등록금 18.95% 협상에 따른 80여가지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작성, 학생회 임원이 학생처장과 총무처장 등의 실처장들과 만나 합의를 보아왔다.

먼저, 2학기 학술 문화 체육 한마당은 총학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대규모행사중 선별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이 되었다. 교수, 교직원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아침 체육활동의 참여와 지원은 자체 계획후 먼저 실시하고 참여율이 높을 경우에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테니스, 조기축구등의 운동으로 아침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려고 했으나 참여부족으로 시행이 무산되었다. 헌혈운동과 보육원 방문운동의 협조지원은 헌혈운동과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호응이 양호할 경우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것또한 참여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월 2회 초청강좌에 따른 지원요구는 강의에 따라 액수가 달리 지원되었다. 지금까지 3월에 한번, 4월에 세번, 5월에 네번, 6월에 한번을 실시해 총 아홉번의 강의를 열었다. 단과대 학생회 및 중앙자치기구에 486컴퓨터 설치는 학생회 각 기구에 지급된 386컴퓨터 구입기한이 불과 2년(94년5월 27일) 밖에 지나지 않아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 신기종 지급은 불가하다고 해 메모리를 8메가로 확장하는데 그쳤다. 취업설명회 개최건은 매년 2회에서 3회 취업설명회와 채용박람회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은 확대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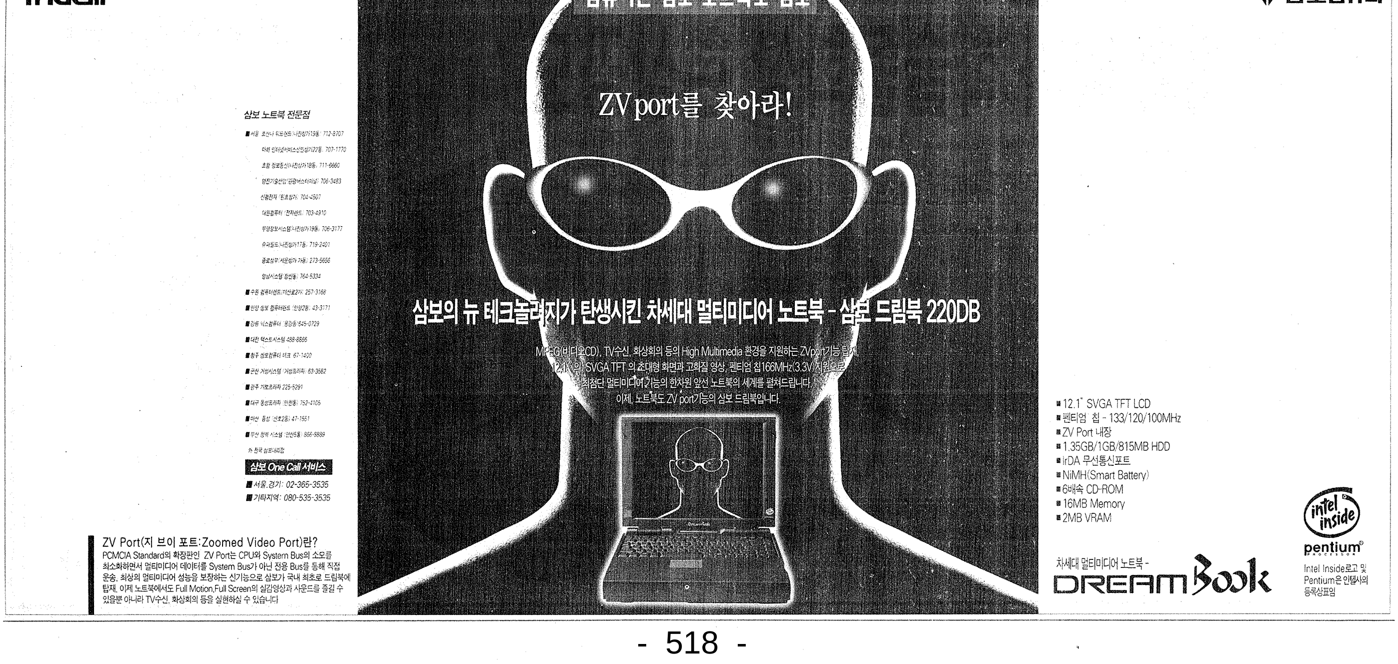
〈학생복지 요구안중 이공대실습동이 지난 1월 22일 준공에 들어가 8월 28일 완공돼 시청의 건물 사용 검사 의뢰중이다.〉

오는 10월에 전북지역 대학 연합의 공동주최로 취업박람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주최될 확률은 80%이다. 깨끗한 대학만들기 운동에 참여 및 지원은 정문옆에 주차장을 1개 신설했고 자연보호 확대 실시, 중앙도서관 차량통제 및 주변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다. 학기중 교내 셔틀버스 운행은 8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15분 간격으로 1일 4회 운행 하려하였으나 학기중에 실시하지 못하고 방중에 한하여 이번 여름방학때 실시하였다. 민족염원 통일 상징 조형물 제작에 따른 지원 요구는 예체능대 교수와 협의후 연구검토하는 방안이어서 학생처에서 미술학과 교수에게 의뢰하였으나 미술학과 교수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현재 2천만원 소요예산의 설계도까지 가지고 있으나 조형물은 학교의 상징역활을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형물다운 조형물을 만들려면 6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여 현재 보류상태에 놓여있다. 단과대학 독서실 환경개선 및 난로 설치 요구는 난로지급은 화재위험 및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여 관리는 학생회에서 담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사용이 많을 경우에 해주겠다고 하였다. 단 경상대와 사범대 독서실은 의자교체 및 접의자 를 지급하였고 기타 환경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서관 각 자료실 및 대출실 이용시간 연장은 기존의 9시에서 4시 30분까지의 대출시간을 지난 9일부터는 10시부터 7시까지로 시행해 학생들이 늦은 저녁에도 자유롭게 책을 빌려볼수 있도록 2시간 가량 연장하였다. 열람실 조명시설 확대 및 그림자 방지를 위한 재배치 요구는 기존의 통로사이에 있던 형광등을 바로 책상위에 재배치해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하고 더많은 형광등을 설치하여 밝은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였다. 단과대 주말개방 요구는 작년 기말고사때 수위를 감원해 토요일은 5시까지 개방하고 일요일은 완전폐쇄하여 학생들이 자유로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중앙위에서 단과대 개방을 요구해 다시 수위를 증원 2교대를 실시하여 토요일과 일요일도 밤 10시까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되었다.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제와 F학점 재수강시 성적증명 재기재 요구는 이 수시기는 정확히 확정은 안되었지만 되도록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이수방안도 교무처에서 연구 검토중에 있다. 이번 학기중에 모든 걸 결정해 정식으로 공포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발췌해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제는 방학중에 실시하는 농활을 비롯 기독교 학교의 특성을 살려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범위를 검토중에 있고 F학점 재수강시 성적 재기재도 공평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방안을 강구하고있다. 도서관 지하매점 환경개선 요구는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에어컨은 학생회관 매점과의 형평성과 예산부족으로 설치가 불가하고 대신 선풍기를 설치해줄 예정이다. 벽체도색도 전년도에 실시하였으므로 다시 전체적으로 해주진 못하고 필요한 부분은 일부 도색해줄 예정이다. 책걸상교체는 현재의 책걸상 부족과 낡음으로 학생식당과 같은 고정식책걸상으로 교체할 예정이나 학교측에서는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 구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각 단과대 로비 중앙도서관과 학생회관에 착신용 전화기 설치 요구는 경상대와 이공대 도서관에 착신용 전화기를 설치하기 위해 통신공사와 협상 중이고 이번달까지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범대와 이공대에는 동전전화기도 설치할 계획이다. 사범대, 경상대 사이 간이휴게실 신축은 현재 설계도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연건평 85평의 조립식 건물로 지을 예정이다. 2학기내에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소운동장 스텐드 설치는 현재 지반면 지내력 조사등을 실시해 타당성을 검토중이나 그 타당성이 희박해 설치가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련관 신축은 현재 완주군 대아리 저수지와 산천분교, 부안의 3곳등을 물색하고 있고 올 11월말 까지는 확정해 수련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요구는 총학측에서는 체육관옆의 공터에 길거리농구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제2의 교수연구동 신축예정으로 불가하게 되었고 학교측에서는 체육관 누수부분을 조사 장마기간 완료후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외음악당 조기 착공은 현재 야외음악당을 신축중에 있고 97년 2월 8일까지는 완공할 예정이다. 학교버스 문제 해결은 현재 군산, 김제, 이리의 시외지역으로의 관광버스 운행을 일부 보조하고 있다. 군산은 독립노선으로 2대가 운행중에 있고 이리는 김제를 경유하여 1대가 운영되고 있다. 정읍지역은 이용자가 적음으로 운행을 폐쇄하였다. 단과대 주변 공원화를 위한 설비는 사회과학대와 구수위실 주변등에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도서관 방음을 위한 방음장 설치요구는 소란스러운 것은 학생들의 의식의 문제라며 차라리 캠페인 활동을 통해 조용한 분위기를 만드는게 낫다고 하나 앞으로 도서관과 협의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회관 및 중앙도서관 팩스 설치는 학교측에서 보안 및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불가하다고 해 총학은 학생들이 팩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비로 팩스를 구입 자신들의 관할아래 총학생회실에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1세기 장기발전대책 기구 조직 요구는 현재 조직이 구성되어 교수연구동 8층에 사무실을 개설해 운영중에 있으나 학생대표의 참여가 배제돼 학생들의 의견과 동떨어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이부대 강의실 난방설치는 장기간의 공사와 경비, 수업에 지장을 초래 하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난방 설치는 불가하다 밝히고 대신 난로 설치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도서관 정전시 자력발전기 사용 요구는 년중 정전일이 2~3일에 불과하는데 자력 발전기 설치는 예산과다라하여 설치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제 2기숙사 신축은 이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여 97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1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을 예정이다.

그밖에도 무수한 학생측의 요구안과 시행계획이 있으며 또한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는 사항도 있다. 현재 80여가지 달하는 요구안중 40여 항목이 실현되었다. 하지만 요구안이 단시일내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인 것을 감안한다면 40여개 항목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전망과 모색이 요구된다. 총학생회는 앞으로 남은 사업기간동안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여 학생복지요구안을 관철시키고자 학교측과 계속적인 협상을 추진할 것이다. 학생복지요구안은 학생들의 기본적 요구이기에 학생회 간부가 학생들의 이익을 지켜내고자 하는 확고한 입장속에서 복지 요구안 사업을 체계적 관리와 구체적 방법을 통한 사업집행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학생의 대중적 힘에 근거해 사업을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더불어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협조도 있어야 할 것이다.

〈임현진 기자〉



◇식용쌀 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쌀농사 의욕꺾는 식용쌀 수입정책

가공용 활용의 정부 발표·실천 있어야

농민·소비자에게 적정가격으로 질좋은것 구입토록해야

정부가 식용쌀(밥쌀)을 수입하기로 한 후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식용쌀(밥쌀)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중국산 쌀을 수입하기로 결정했고 그것도 (주)대우의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우리쌀의 1/5수준 가격인 중·단립종쌀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리고 8월 중 밥쌀 도입을 마무리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무지 쌀 농사를 어쩌자는 것인지 농민들의 반발은 거세고 국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수없이 되풀이 하는 얘기지만 쌀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일관성이 없고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어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 '쌀만은 반드시 지키겠다'가 '개방하겠다'로 바뀌고 '개방해도 가공용으로만 사용해 농가경제와 쌀 농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가 '식용'으로 바뀌고 쌀이 남아돈다고 법석이더니 금새 부족하다고 요란스럽다. 뿐만 아니라 논에 원예작물이나 고소득 작물재배를 독려하더니 벼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정책자금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해마다 쌀 정책이 바뀌고 있다. 최근에 발표한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 도쌀자금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쌀자급기반을 붕괴시킬 요소가 다분한 식용쌀 수입조치와 같은 시기에 나와 어느것이 정부의 본 뜻인지 여간 혼란스러운게 아니다.

정부는 왜 식용쌀을 수입하나

①쌀 값 상승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

단경기로 갈수록 쌀 값이 폭등하고 심할 경우 미곡상의 사재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모양지만 현재 남아있는 재고량을 면밀히 파악해 유통과 출하를 조절하고 시장점유율을 분석해 적절히 대응하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본다. 쌀 값이 상승하는 것도 서민에게는 부담이지만 쌀 값도 농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는 쪽으로 현실화 해야하고 실제 쌀 값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물가를 조절하려는 의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②적정재고량에 못미치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의도가 있다.

현재 재고미의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농협 보유량은 확인이 가능하다. 양곡가공협회, 영농법인,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양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무리다. 적정재고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은 추정치 일뿐이지 정부가 지나치게 엄살을 피운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으며 유통시장구조를 분석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찾지 않고 수입에만 의존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1980년 우리나라가 극심한 냉해로 벼 농사가 흉작이었을 때 약 3백30만톤의 쌀을 긴급수입함으로 말미암아 이후 10년 이상 쌀 재고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상기해 보아야 한다. 2백만톤만 수입해도 될 텐데 과잉수입해 국고를 낭비했을 뿐 아니라 농민이 입은 피해는 또 얼마나 컸는지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재배면적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보면 식용쌀 수입은 성급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③재경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의 농업관과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재한 것도 원인이다.

모든 가치기준을 비교우위에 놓고 보는한 농업과 쌀에 대한 관점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잣대를 극복하기 어렵다.

〈정부가 식용쌀을 수입하기로 한후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우의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우리쌀의 1/5수준 가격인 중·단립종쌀의 수입을 강행하였다.〉

식용쌀 수입의 문제점과 미치는 영향

식용쌀 수입의 문제점과 우리 쌀농사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첫째, 금번 식용쌀 수입결정은 밀실 정책의 전형이라는 점이다.

전문가, 농민, 소비자, 정부가 식용쌀 수입과 같이 중대한 문제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이나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농민들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 정부의 결정이 지나치게 성급하고 일관성을 잃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쌀 증산을 위해 휴경지 경작, 포기수 늘려 심기, 논에 쌀농사 짓기 등을 적극 권장하더니 그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이에 역행하는 식용쌀 수입조치를 발표한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세째, 식용쌀 수입 방침결정은 최선책이 아니고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쌀 자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활용하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신만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식용쌀 수입조치를 발표한 것은 차선도 아닌 최악의 판단이었다.

네째, 금번 수입방침 결정은 경제이론적으로 면밀한 분석없이 진행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쌀의 시장점유율(농협 40%상회)을 살펴보고 농협이 보유한 물량을 감안하면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음에도 가능한 수단과 방법은 고려하지 않은채 손쉬운 방법만 택하려는 문제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시장점유율이 30%가 넘으면 가격조절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섯째, 농정불신을 심화시킨 것이다.

식용쌀이 수입되는 마당에 어느 농민이 정부정책을 믿고 따르겠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여섯째, 선례를 남긴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결정이 앞으로 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외국의 개방압력이 있을 때 언제든지 수입하는 선례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일곱째, 쌀 생산 저하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쌀자급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식용쌀 수입이 선례가 되고 국내 쌀값이 하락하면 재배기피로 인해 생산량은 감소하고 따라서 쌀자급은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으며 식량안보에 막대한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여덟째,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의 압력을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문제가 있다.

중국산쌀을 식용쌀로 수입할 것을 결정하자 금새 미국의 통상장관인 미키켄터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자국산 쌀을 수입하도록 협박성 권고를 하고 간 점만 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행정책

'쌀만은 지키겠다'로 바뀌어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식용쌀 수입방침을 철회하고 애초의 약속처럼 가공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대국민 선언과 함께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둘째, 식용쌀 수입사태까지 가져온 정부의 쌀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쌀자급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세째, 정부가 UR협상 당시 체결한 협정과 같이 의무수입물량의 쌀만 수입 해야 한다.

네째, 쌀 자급을 위해 생산보장, 농지법 개혁, 각종 생산장려책 도입 등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쌀농사를 짓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점유율을 분석해 가격을 조절하고 출하·유통을 합리적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여섯째,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 행정지도와 출하지도를 하고 농민에겐 가격이 보장되고 소비자는 적정가격으로 질좋은 쌀을 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안들을 강구하고 쌀농사 의욕을 꺾는 식용쌀 수입을 중단하고 가공용으로만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황 만 길

(전농 전북도연맹 정책실장)

흐름

며칠 전 해외에 나가 호화쇼핑하는 의원들의 사건이 신문기사의 톱을 오르내렸다. 또한 경기침체로 민간기업이 감량경영을 하고 사람을 줄이는등 생존을 위한 몸부림도 실렸었다.

"내돈 내가 쓰는데 무슨 참견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풍부한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수출 아니면 살아나갈 길이 없는 와중에 외화를 벌어들일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외국에 돈 뿌리고 다니는 일을 한다는 것은 몰상식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해외여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로인해 해외로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 몇백만원 상당의 사치품을 사들고 오고 보신관광등 나라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많아졌다. 그 중에는 누구보다도 나라일에 앞장서야 할 의원들이 외국에 나가 몇백만원 상당의 꼬냑을 세관도 무시한채 들여오고, 공항에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는등 애초에 하려고 했던 일은 안하고 나라망신만 시키고 돌아왔다는 말들이 시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렸다.

그 의원들의 월급은 한푼의 오차도 없는 봉급자들의 월급과 더불어 땀흘려 일하는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이 그에 보답은 못할망정 국가 세금을 안내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제일 놀기좋은 7~8월에 외국을 다녀온 의원들이 1백95명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제각기 방문목적을 가지고 출국했을 것이다. 그러나 몇몇 의원들은 외국 나들이로 생각하고 보신관광 골프등

의원, 과소비 자제해야

망신살 뻗친 일들을 했다. 한 시민은 이런 말을 한다. "경제난국에 허리띠 졸라매라더니 이게 무슨 추태인가" 허리띠는 시민들이 졸라매고 자기들은 배불리 놀고 먹겠다는 말인가?

현재 우리의 의원외교는 국가이익차원이 아닌 개인여행의 성격이 짙은 것이 관행처럼 돼 버렸다. 이런 일들이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필수인원만 의원 외교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말이다.

이 사건 뿐만 아니고 경비행기를 동원한 8천평 잔디구장에서 열린 호화 결혼식도 있었다. 결혼식무대에 드라이 아이스와 비누방울이 뿌려지는등 시민들에게 "너무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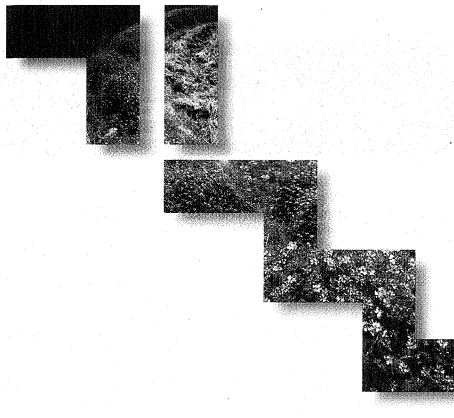
명예퇴직이란 그럴싸한 말로 직원들을 몰아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수십명씩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판에 아무렇지도 않은듯 호화 결혼식을 했다는 것은 정말 몰상식하고 염치없는 일이다. 더욱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이벤트사에서 행사를 주관해 진행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고생을 많이 한 의원 아들의 결혼식인 만큼 이해해 달라"는 전혀 반성없는 태도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소비 풍조를 불러일으켜서야 되겠는가? 경기침체로 우울한 시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요즘엔 많이 사라졌지만, 이번 명절에도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물건들이 오고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돈쓰는 일에 고심하지 말고 직장에서 쫓겨나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경기침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해야 할 것이다.

(김성남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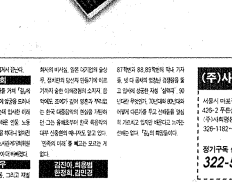
대학만평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노신은 말했습니다. 길이란 무엇이던가?
없던 것을 밟으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길이 아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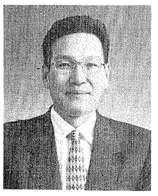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패기와 고뇌의 젊음, 당신이 가는 길,
월간 『사회평론 길』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월간 『사회평론 길』은
우리 시대 젊은 지성의 동반자입니다.



● 천리안 rx1214
● 하이텔 monthgil ● 나우누리 ychh

(주)사회평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426-2 푸른산 빌딩 3층
(주)사회평론
326-1182~5
정기구독 신청
322-5484

세 류 일 침



김종국(보험학과·부교수)

지난 15일부터 북한 무장공비가 4차례나 침투하여 비행장을 정찰하고 임무를 끝내고 돌아가려다 암초에 부딪혀 좌초한 것을 택시운전기사가 신고하여 사살 및 생포하여 지금도 군작전을 계시하고 있다고 발표되고 있다. 지난번 연세대에서 한총련 학생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응징하고 감시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국경이 저렇게도 허술하게 뚫려 있다면 우리가 내는 세금은 어디에다 쓰고 전자전을 준비한다는 국방부의 발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대전의 정찰기는 탁구공 하나의 움직임도 정확하게 포착한다는 시대에 우리의 국방비는 어디로 쓰여져가고 있는가? 남·북한간의 냉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언제 우리 민족은 서방세계의 국가들과 어깨를 겨루고, 일본이 아시아에서의 독주를 막고 부강한 한국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를 이 아침에 되새기게 한다.

우리도 언젠가는 통일된 모습으로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한민족을 통합하고 이 형제들을 거점으로 세계무대에서 활개치며 도약할 수 있는가를 꿈꾸어 보았다. 며칠전 직업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가 보내준 '한반도 통일후 군사통합방안'이라는 책자에서 몇대목이 오늘 아침에는 더욱 눈길을 끌며 남북한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분단된 독일을 통일하기 위한 작업은 동·서 냉전 체제하에서, 라인강의 기적에 따라 서독이 경제·사회·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면서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서독은 통일전략으로 자유민주주의 체

소탐대실(小貪大失)

제의 확립을 통한 정치적 안정, 동맹정책 추진과 전쟁억지 능력 확보를 위한 소련의 군사위협극복, 강력한 경제력 건설을 통한 통일 주도권의 장악 및 민족의 동질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통일전략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독은 국제환경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이를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동·서 냉전 체제하에서는 국력회복과 최소의 전쟁 억지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 동맹국의 방위 분담 노력을 최소화하면서, 정예 군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유럽 지역의 안보협력회의를 주도적으로 선도하여 유럽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고르바초프의 등장을 계기로 통일 기반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대소 화해를 적극 추진하고 동구의 변혁을 촉진시켰으며, 급기야는 동독의 국경개방 상황을 조성하였다.

통일을 위한 작업과정에서는 동·서독 내부의 결속을 다져가면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통일을 추진하였으며, 통일에 영향을 주는 주변국의 이해를 촉구하고 간섭을 배제하는 등 국제환경의 변화를 직시적으로 포착하여 통일로 연결하였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의회민주주의가 성숙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였으며, 인권 존중 풍토를 조성하여 민주 시민화에 성공함으로써 대동독체제의 우월성 및 내부안정을 확보하게 되었다.

서독정부가 통일을 조성하는데는 위와 같은 감탄스런 대내외 정책을 전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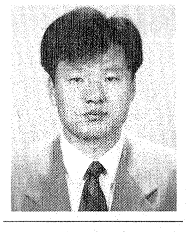
우리 현실과 내부를 살펴볼 때, 우리 정부가 정치·경제·사회의 안정을 이룩하였는가?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하였는가? 환상적인 통일의욕을 앞세우기만 하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리능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정말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정말 우리정부는 남한 내부의 정적들에게만 칼날을 들이대고 외부의 침공은 소홀 하지 않았느냐하는 소탐대실하는 국정능력을 보는 것 같아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불쌍하기만 하다.

논단 ◇JEONDRS(전자계산소 시스템)을 통한 전자우편 서비스 활용

전자우편, 다른 사용자에 편지 송·수신 가능 서비스

사용시 E-mail·IP 어드레스·사용자 ID 필요



유 희 진

(전기전자컴퓨터 공학부·객원교수)

인터넷 정보망은 각각의 호스트들을 연결하는 범 세계적 네트워크로 이들 호스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인터넷 세계는 막연한 미지의 세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세계가 아니다. 최소한의 몇몇 기능만 익힌다면 그리 접근하기 어렵지 않다.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기능으로는 전자우편(E-mail), FTP, 텔넷(Telnet), 아치(Archie), IRC, 유즈넷 (Usenet), 고퍼(Gopher),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등이 있다. 본 기고에서는 우리학교 전자계산소 시스템을 통한 전자우편 서비스를 자세히 설명한다. 먼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전자계산소 시스템 JEONDRS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1. JEONDRS 시스템 접속

전자계산소의 JEONDRS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터넷 정보사냥을 떠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준비를 하자.

첫째, JEONDRS 시스템 사용을 위해 자신의 계정(사용자ID와 암호)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정이 필요한 사람은 전자계산소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JEONDRS 시스템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계산소 2PC실에는 JEONDRS 시스템에 연결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단말기를 이용한 JEONDRS 시스템 접속 방법이다. 순서대로 따라 해보자.

파워 스위치를 올려 부팅을 하면 모니터에 도스 프롬프트 'C:\>'가 나타난다. 다음과 같이 입력 한다.

```
C:\> ftcp
C:\> win
```

화면에는 윈도우 3.1 프로그램이 실행 화면이 있다. WWW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etscape2.0 그룹을 선택하여 Netscape Navigator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된다.

텍스트 형태의 다른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면 Future/TCP V3.0 for Windows 그룹을 선택하여 가상 단말기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그리고 세션 메뉴에서 '연결' 명령을 실행하면 화면에 'login:'이 나타난다. 이제 여러분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하면 JEONDRS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우편·팩스의 불편함 해소… 전자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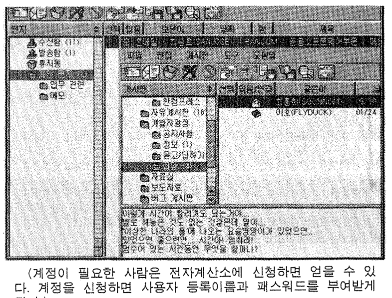
도메인 네임 시스템… 사용자·도메임 이름

2. 전자우편

전자우편(Electronic mail)이란 인터넷상의 다른 사용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이다. 전자우편은 편지가 교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팩스의 통화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일반우편이나 팩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준다. 일반 우편의 경우 편지를 보내기 위해 수신인과 주소가 필요한 것과 같이 전자우편 서비스에도 수신인의 인터넷 주소가 필요하다. 이 주소를 E-mail 어드레스라고 하고 IP 어드레스와 사용자 이름으로 구성된다.

인터넷에서는 개인과 컴퓨터에게 주소를 할당해 주기 위해 도메인 네임 시스템(domain namesystem)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이름(user name) @ 도메인 이름(domain name)' 사용자 이름은 현재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의 계정(account)을 말하고, 도메인 이름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이름과 이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이름 이다. 도메인 이름은 중복됨이 없이 유일하게 부여된다. 컴퓨터의 이름과 네트워크의 이름은 일련의 숫자와 영문 이름으로 표현된다. 숫자는IP 어드레스를 나타내고 영문 이름은 IP 어드레스를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 이다. 이들 숫자(IP 어드레스)나 영문 이름은 모두 같은 주소를 나타낸다. 필자도 우리학교 전자계산소 시스템에 계정을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필자의 E-mail 어드레스는 'hjyoo@jeondrs.jeonju.ac.kr'이다. 필요한 사람은 전자계산소에 계정을 신청하면 얻을 수 있다. 계정을 신청하면 여러분은 사용자 등록 이름과 패스워드를 부여받게 된다. 이제 여러분은 전자계산소 시스템 JEONDRS을 사용하여 전자우편을 보내고 받을 준비가 되었다.



〈계정이 필요한 사람은 전자계산소에 신청하면 얻을 수 있다. 계정을 신청하면 사용자 등록이름과 패스워드를 부여받게 된다.〉

여러분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JEONDRS은 여러분이 정당한 사용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등록 이름(login)과 암호(password)를 묻는다. 이에 여러분의 사용자 등록 이름과 암호를 입력한다. 정확히 입력이 되었으면 유닉스 프롬프트 $가 여러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간단히 편지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보내보자. 전자우편 수신자는 실습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E-mail 어드레스로 하거나 필자의 E-mail 어드레스로 한다.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hjyoo@jeondrs.jeonju.ac.kr는 필자의 E-mail 어드레스 이다.

$ mail hjyoo@jeondrs.jeonju.ac.kr This is a mail for test.

+키를 누르면 프롬프트가 다음 라인으로 이동한다. 이제 여러분이 편지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편집이 끝나면 + 를 눌러 편지내용을 전송한다. 누가 여러분에게 전자우편을 보냈다면 여러분은 login과 password 입력후에 바로 you have mail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전자우편들이 수신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 mailx '을 입력하여 보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전자우편 목록이 리스트 된다.

$ mailx 도움말을 보려면 ?을 누르십시오.

"/var/mail/hjyoo":1개의 메시지, 1개의 새로운 메시지, 1개의 읽지않은 메시지 >N 1 Yoo Heejin Mon Sep 2 12:17 12/265? 여기서 '>'은 현재 커서의 위치, 'N'은 새로운 편지, '1'은 편지 번호, 'Yoo Heejin'은 편지를 보낸 사람, 'Mon Sep 2 12:17'은 편지를 보낸 날짜와 시간, '12/265'은 편지의 크기(12줄 265문자)를 의미한다. 프롬프트가?으로 바뀌었다. 수신된 편지를 읽기 위해서는 단지 읽고자 하는 편지 번호를 ? 프롬프트 다음에 입력하면된다. 다음은 전자우편 프롬프트 ?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이다.

```
? 숫자
/* 읽고자하는 전자우편의 번호를 입력한다. */
? d [편지 번호]
/* 지정한 편지를 지운다. */
? s [편지 번호] [파일이름]
/* 지정한 편지 내용을 지정된 파일이름으로 저장한다. */
```

편지를 읽은 후 편지를 지우지 않고 프로그램을 빠져 나오면 편지는 mbox라는 파일에 자동적으로 저장된다. mbox에 저장된 편지를 읽고 싶으면 $mail-f mbox라고 입력한다.

PC를 사용하여 JEONDRS시스템에 다이얼 업 접속을 한 사용자는 JEONDRS 시스템에 수신된 전자우편을 자신의 PC로 복사해오기를 원할 것이다. 복사하기 전에 먼저 수신된 전자우편을 파일로 저장한다. 그리고 JEONDRS 시스템에서 복사하기를 원하는 파일을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 sz 파일이름 그 다음 '이야기'나 '하이퍼터미널'같은 통신프로그램의 메뉴에서 파일받기 명령을 선택하고 파일을 받아 저장할 적당한 디렉토리를 지정하면 된다.

대학이야기

유니버시티… 교사와 학생들의 조합

이제까지 살핀 것처럼 '대학'이란 주왕조의 국학기관의 이름에서 유래된 말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학은 서구의 '유니버시티(university)'를 번역한 말이라 하겠다. 서구사회에서도 대학의 기원을 플라톤이 창설했던 아카데미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와 교수를 특징으로 하는 참된 의미의 대학으로 시작한 것은 서구의 유니버시티라 할 수 있다.

'대학의 등장(The Rise of University)'이라는 책을 쓴 미국의 중세 연구가 하스킨스(Charles Homer Haskins)에 따르면, 유니버시티는 카톨릭 대성당(cathderal)과 의회(parliamernt)와 함께 중세 유럽의 산물이라고 한다. 유니버시티는 원래 라틴어 '우니베르시타스(universitas)'에서 유래된 말로 그 뜻은 단순히 다수나 복수를 나타내는 사람의 집합체를 말한다. 그러던 것이 서구의 근대대학이 시작되던 12세기 말과 13세기 초에는 '교사와 학생들의 조합'을 나타내는 말로 바뀌어서 오늘날 대학을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오늘날 대학하면, 우리는 중세식의 고풍스럽고 웅장한 석조물로 잘 꾸며진 장소로, 그래서 데이트를 하거나 사진찍기에 좋은 낭만의 장소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 우니베르시타스는 오늘날과 같이 특별한 건물이나 시설을 갖지 않았다. 강의는 수도원이나 교회의 일부, 또는 교사의 집이나 민가를 임대해서 이루어졌다. 우니베르시타스는 단순히 '교사와 학생들로 이루어진 조합'이었기 때문에, 대학은 마음만 먹으면 자유롭게 옮겨다닐 수가 있었다. 15세기에 와서야 대학은 오늘날과 같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시설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서구유럽에서 초창기 대학은 요즈음 말로 하면 모두 이동식 강의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오늘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도대체 우니베르시타스라는 이동식 강의란 무엇을 말하는가? 또 어째서 우니베르시타스는 여기 저기를 옮겨다녀야 했는가? 이러한 물음은 오늘날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교수회의와 학생회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서구대학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학술부〉

그녀의 외침으로 세계가 깨어났다

남아프리카의 비인간적인 인종차별을

전세계에 고발한 나딘 고디머 —

한 여성의 용기어린 삶이 역사를 바꿔놓듯,

여대생 여러분의 잠재력 속엔 무궁무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향한 여러분의

앞선 사고를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태평양은 여성의 꿈과 미래를

이어드립니다.

나딘 고디머(1923 ~)
남아프리카의 비인간적인 인종차별정책에 대항하는 작품을 통해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한 백인작가. 199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 컬춰렛(Culturette)이란?
여성문화 활동가를 뜻하는 말로써, 21세기 새로운 여성문화를 창조하는 앞서가는 여성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제2회 컬춰렛 선발

태평양「여대생 논문」공모전

1. 참가대상 · 전국 각 대학 재학중인 여대생, 여대학원생
2. 응모기간 · 96.10.21 ~ 10.31
3. 응모주제 · 현대 가족속에서 여성의 역할 (택일)
   ① 자녀 교육문제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
   ② 부부 관계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
   ③ 혼수 문제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
   ④ 효의 문제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
   ⑤ 상기의 열거된 것 외에 가정이나 가족 속에서의 여성의 역할
4. 응모방법
   ■ 분 량 · A4용지 20매내외 분량 (200자원고지 80매 분량) 워드프로세서 이용 작성제출
   · 2장내외 논문요약내용 별첨
   · 논문원본 1부 및 사본 2부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96년10월현재)
   · 자기소개서 1부(여권용사진부착)
   - 연락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5. 시 상 · 최우수상 1명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우 수 상 3명 - 상패 및 상금 각 200만원
   · 장 려 상 5명 - 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
6. 입상자 발표
   · 1996 년 12월 16일 개별통지
7. 제출처
   · 우편번호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75-2 성원빌딩 태평양장학문화재단 사무국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마감일전 도착분에 한함)
8. 기타사항
   · 수상자는 당사 입사시 우대
   · 수상자는 졸업때까지 매년1회 이상의 컬춰렛 모임 초대
   · 수상자 전원에게 2박 3일 태평양 제주농장 견학
   · 전원 기념품 증정
   · 제출논문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지에 발표되지 않아야 함.
   · 응모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장학문화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화 02-749-2388 ~ 9)
9. 심사기준
   · 독창성, 논리성, 실용성

태평양

◇간담회

학생처, 선거시행세칙 개정 요구

선관위 선출·학점규제 철폐… 전학대회 결정 따르기로

본사(편집국장:최경주, 일어교육·3)와 EBS(실무국장:강동균, 생물·3) 주관으로 김용선학생처장과 김대윤 총학생회장의 간담회가 지난 19일 학생처에서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반기 제1차 전학대회에서 선출된 선관위 구성문제와 피선거권 학점 규제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여 싣는다.

〈엮은이 밝힘〉

〈질문 1〉 지난 9일 열린 하반기 제1차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안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총학생회장－상반기 사업 및 회계감사와 학술문화체육 한마당 개최, 선관위 구성,총대해체에 따른 예산 처리 등 총 4가지 안건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상반기 사업 및 회계 감사 보고에서는 지금까지의 학생 자치기구와는 달리 상반기 사업 감사 부문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다시 말해 상반기 사업들이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지와 많은 학생들의 지지와 호응 속에서 치뤄냈는지를 냉철히 생각해 보며 개선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였으며 2학기 사업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두번째, 학술문화체육 한마당은 산발적으로 진행돼 온 과·단과대 학술제를 통합하여 대학 공동체를 실현시키고자 제안됐다. 세번째, 선관위 선출은 3·27학생총회에서 인준된 학생회칙에 준하여 선관위원장에 총학생회장, 중앙위 3인, 일반 전학대회위원 17인으로 구성됐다. 네번째 안건인 총대예산 1천3백만원 처리 문제는 중앙위들의 기본입장인 선관위와 감사위원들에게 1인당 장학금 10만원 지급, 선관위 운영비 1백50만원, 감사재정으로 90만원, 또한 민주광장 정비 사업비로 2백만원, 과학생회 10만원 지원 등으로 처리했으나 전학대회 속에서 중앙위 입장이 채택되지 않고 10월 초에 있을 전학대회로 위임했다.

〈질문 2〉 학생처장은 이번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안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생처장－인준된 사항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없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과 선관위 구성문제를 지적하고 고쳐주기를 바랄 뿐이다. 먼저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규제는 어느 선거에서나 하고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교에서는 학점에 관한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적어도 간부라 하면 모든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하는데 만약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이 학생회장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일반학생들이 그 간부를 따르겠느냐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학점규제는 꼭 시행세칙에 들어가야 한다. 두번째, 선관위 구성문제를 보면 선관위원장에 총학생회장, 선관위원들은 모두 단대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회칙 제13장 선거의 11조 피선거권을 보면 각급 학생자치 기구장이 임원일 경우에는 등록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총학선거의 관리를 현 총학이 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다음 대선의 선관위원장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 아닌가.

〈질문 3〉 이두가지 문제에 대한 학생처장의 대안점은

학생처장－피선거권 규제에 관한 것은 종전의 시행세칙대로 평균평점 2.5나 그전의 2.0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총학간부나 단대학생회 간부를 뽑는 선거이므로 지금의 총학생회장이나 학생간부가 아닌 다른 학생들로 선관위가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과대표라든지 하는 학생들이 선관위원이 되고 그중에서 선관위원장을 선출했으면 좋겠다.

〈질문 4〉 학생처장의 의견에 대한 총학생회장의 입장은

총학생회장－학우들의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대중적인 합의과정을 거쳐 수정해 나가겠다. 그러나 자치기구장에 출마한 사람이 성적의 높고 낮음 때문에 당연히 학생회비를 냈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자격기준에 제약을 받는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선관위 구성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학대회의 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전학대회는 과학생회 사업을 책임지면서 과학생들을 대표하는 과 학생회장들을 주체로 하고 있다. 즉 과 학생회장은 각과 학생들로부터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3·27학생총회를 통해 전학대회는 선거관리, 학생회 사업에 관한 감사를 감당하게 되어 전체간부들의 통제와 견제 속에서 학우들의 여론을 수렴, 결정된 사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결국 선관위는 전학대회의 가장 핵심적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내년 학생회가 더욱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여 더나은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학내 자치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간부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가지 분명히 하게 넘어가야 할 것은 선관위 구성과 학점조항 철폐는 3·27 학생총회에서 3천명이 넘는 학생들의 의사 결정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학교 및 전체 학생들에게 인정받아왔다는 것이다. 바로 이웃학교인 전북대학의 경우에는 3년 전부터 전학대회에서 선관위 구성을 결정하고 선관위원장을 총학생회장이 맡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다. 유독 왜 우리 대학 학생과에서는 이 회칙에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 당사자인 학생들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합의 속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기에 앞서 실천적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실천적 검증과정이 바로 선거이다.

학생처장－선거 치루기 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선거를 통해 검증을 받을 수 있는가

총학생회장－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을 여론 합의 절차를 통해 반영해 나가겠다. 그러나 학생회칙 자체를 개정하려면 학생총회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원에 중앙위원들과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포함됐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며 주관적인 판단이다.

학생처장－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총학생회나 전학대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단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학생과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를 치루는데 현 학생회가 내년도 학생회 발전을 위해 총학이 적극적으로 치뤄나가야 한다는 것은 일반 학생들에게 대물림을 하기 위한 뜻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러므로 피선거권과 관계없는 사람이 선관위를 해야 한다. 또하나 회칙 개정에 관한 문제인데 꼭 학생총회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전학대회에서도 개정할 수 있는데 이 문제 또한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있다면 전학대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

〈질문 5〉 학생회칙 개정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생총회 당시 인준된 회칙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학생처장－아니다. 학생회칙이라고 학생과에 가져왔을 때 이미 문제제기를 했다.

〈질문 6〉 그렇다면 학생회칙 자체를 학생과에서는 승인하지 않은 상태인가

학생처장－승인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학생들은 그것을 스스로 알아서 학교입장을 고려하여 새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 그것에 대한 이러한 토의 과정이 없어서 선거를 앞둔 이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질문 7〉 이에 대한 총학생회 입장은

총학생회장－학생회칙 자체는 전학대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다. 여기에 대해, 학생과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학생처장이 전학대회 위상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생처장－전학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학생처장이 찾아주고 그것을 지적하며 고치라고 권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 것도 하지 못한다면 학생처장이 허수아비나 마찬가지 아닌가.

총학생회장－그런 얘기가 아니라 학생처장이 전학대회 자체의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내년 학생회 선거에 현 학생회 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학생처장의 우려는 학생회를 일부의 이해관계나 정파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생처장－총학생회장의 말처럼 현 총학이 다음 선거를 공정하게 치루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단지 민주적인 선거의 본질을 따질 때 학생회장이 다음 선거의 선관위원장이 되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질문 8〉 학생처장은 또다시 학생회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가

학생처장－학생총회가 열리기 이전에 피선거권과 선관위 구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시정이 없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회칙을 공고를 해야 할 시기에 있으므로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며 총학 또한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고친다는 입장이니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이 고쳐서 이번 선거를 치뤄야 한다.

〈질문 9〉 총학생회장은 학생과에서 회칙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총학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지

총학생회장－우리가 제기 받았던 것은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이었을 뿐이었다.

학생처장－우리가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만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선관위 구성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전학대회가 열리니까 그 전학대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다시 얘기한다고 해서 제기를 하지 않은 것 뿐이다. 또한 그 때는 학생회칙에 관한 사항만을 가져왔지 선거시행세칙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서야 문제제기를 했다.

총학생회장－이번 선거시행세칙은 창립 전학대회때 다른 학생회칙과 함께 의사결정된 것이다. 또 피선거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전학대회를 통해 다시 논의했지만 이것이 선거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결정된 것이다. 이렇듯 학교측이 학생들의 활동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학생회의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한다.

학생처장－어느 대학 못지않게 우리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활동을 개방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피선거권을 징계받은 학생에게 줄 수 있느냐와 전·편입학 하는 학생에게 줄 수 있겠느냐는 문제이다.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학점을 규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는 것이지 학생들의 활동에 개입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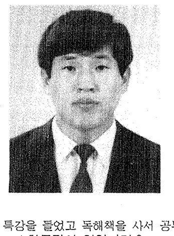
〈질문 10〉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학생처장은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선관위 선출문제와 피선거권에 대해 학생과에서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 문제를 많은 일반 학생들도 동감하고 제기하게 된다면 전학대회를 통해 회칙 개정을 했으면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 위원들로부터 학생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다시 한 번 선거시행 세칙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리 : 최경주기자〉

인터뷰

제31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박상민 (회계·91년 졸) 동문을 만나



▲합격한 소감은?

합격을 해서 너무 기쁘고, 홀가분하고 이제야 면했구나 하는 안도감이 느껴진다. 한두해도 아니고 90년대가 시작된 이후로 7년동안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이룩해 놓은 것이 없어 허탈했었는데 이번 가을은 새로운 느낌으로 활기차게 맞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공부는 어떻게 했는가?

경상대 고시반에서 주로 공부를 했으며 시험이 임박해서는 서울에서 학원을 다녔다. 하루에 8~10시간정도 매일 공부했다. 영어가 조금 약했는데 영어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특강을 들었고 독해책을 사서 공부를 했다.

▲힘든점이 있었다면?

눈이 난시라서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공부리듬 조절이 힘들었으며 경상대 고시반에서 공부를 할 때에 고시반이 2층에 있었는데 지하에 풍물패 동아리가 있어서 시끄러울 때가 많아 공부에 지장이 많았다. 학교측에서 법정대 고시반과 통합해서 고시원 건물을 세워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은 없는 것으로 보여 가건물이라도 독립 건물을 세우고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면 더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수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7년간 인내 결실 맺어

▲고시공부를 하기위해 후배가 자문을 구한다면?

고시는 삼분의 일쯤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년동안 공부하고 시험보고 또 1년후에 시험을 보는데 공부하는 그 기간 사이에 전에 공부한 것은 잊게되고 따라서 수험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실력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은 아니고 시험 보기 직전까지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단시간에 집중해서 뿌리 끝까지 파고 드는 공부방식을 택해서 공부하기를 바란다.

▲시험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했나?

상업고등학교때 부기선생님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회계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회계학과를 지원한 것이 수험생활의 시작이었다. 본격적으로 공부 한 때는 군대 갔다와서 3학년에 복학하여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 4학년때 처음으로 공인회계사 1차시험을 쳤으나 역부족으로 떨어졌다. 7년의 시험공부 기간 중 1차시험에서 3번, 2차시험에서 2번 낙방하여 이 시험이 나와는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살아가는 동안 미련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고 한 번 목표한 것은 기필코 이루겠다는 오기가 생겨서 95년에 1차 합격, 올해에 2차 시험을 합격할 수가 있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연수받고 회계법인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법인 수습기간중에, 관련 대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앞으로 자본주의 파수꾼으로써 임무를 다하는 성실한 공인회계사가 되고 싶다.

▲전주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7년동안의 오랜 수험기간 내내 물질적, 정신적으로 격려와 질타를 해주신 양종갑, 박준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이시간에도 공부에 열중하고 있을 경상대 고시반 실원들과 도서관에서 분투 중인 모든 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길 바란다.

〈황선애 기자〉

한가위 선물셋트 판매안내

병자년 팔월 한가위를 맞이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을 위하여 각 업체들과 직거래로 한가위 선물셋트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래와 같이 판매하고 있사오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

아 래

1. 판매장소:교수연구동 지하 신협구판장
2. 종 류:홍삼류, 국산차류, 커피류, 젓갈류, 참치캔류, 햄류, 참기름류, 식용유, 양말류, 토종꿀, 유공주유상품권, 일반생활용품, 과일등

전주대학교 신용협동조합 구판장

97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모집인원:○○○명

지원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임관일 기준 만 20세~27세인자(70. 10. 1~77. 9. 30)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96. 9. 21~10. 19
－장소:각 대학 학군단 및 지방병무청 모병관실

구비서류
・지원서 1부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칼라사진(4×5㎝)6매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등본 2부(부모사망시 제적등본 부 추가) ・호적등본 2부
・타군출신자는 해당군 참모총장 추천서 1부
・신원진술서 A양식 1매

선발절차
－1차: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2차:신체검사, 신원조회
－최종합격자 발표:97. 2. 28

특 전
－12주 교육후 육군 소위로 임관
－군 복무간 복지 혜택(급여, 면세품, 의료보험 등)
－전역후 일반기업체 위업 알선
－국내외 민간대학원에 국비 취학 가능/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 (장기 지원자)

전 주 대 학 군 단

75년생으로서 96학년도 대학입학자

입영기일 연기제도 알림

정부의 "규제 개혁"시책 및 병무행정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현역병 입영대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대학을 졸업할 수 없는 제한연령 초과 대학 입학자의 입영(소집) 기일 연기 제도를 국민편익 도모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학생들이 1학년 수료시까지 계속 학업에 전념하도록 안내합니다.

가. 개정 내용 및 적용대상

연기사유	입영기일 연기 기간	
	현 행	개 정(안)
제한연령 초과 대학(과) 입학자	그해(21세) 1학기 수료일 다음 입영계획 일정까지	그해(21세) 1학년 수료일 다음 입영 계획 일정까지

나. 적용대상:96학년도 대학(교) 입학한자부터

다. 금년대상:75년생으로서 96학년도 입학하여 현재 재학중인자.

전주지방병무청장

호남의 금석

〈4〉호국의 간성—산성의 금석문을 찾아서

침략의 역사 쌓아놓은 산성의 한

평시 군창으로 이용·전시 주민대피소… 나라지켜

국토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산이다 보니, 그리고 잊을만 하면 한번씩 외적의 침입을 받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산성이 많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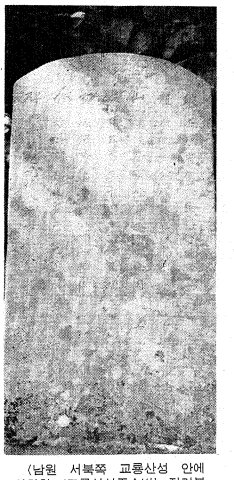
산성은 글자 그대로 산에 쌓은 성, 또는 산세에 따라 쌓은 성을 말한다. 산 꼭대기나 사면을 이용해 적이 공격할 때 많은 힘이 들게 하는 반면에 아군이 적을 내려다보며 성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쌓은 성들을 통털어서 산성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산성은 그 기원이 선사시대의 암부시베리아나 만주지방의 도피용(逃避用) 성책(城柵)과 아주 닮았으며, 삼국시대에 이르러 산성이 많이 축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산성이 평상시에는 군대의 창고(軍倉)로 곡식과 무기를 준비해 두었다가 적이 처들어오면 평지의 주민들을 모두 산성에 들어오게 해서 농성(籠城)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지금도 데모를 할 때는 종종 농성이라는 말을 쓴다.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적이 돌아갈 때까지 농성을 하던 산성! 어쩌면 남의 나라라곤 한 번도 처보지못한 채 당하기만 하던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말해주는 흔적이 산성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산성을 찾는 마음은 설레이는 즐거움보다는 쓸쓸하고 처연한 생각마저 들게 마련이다.

황산대첩비를 돌아보는 김에 우리는 남원 교룡산성(蛟龍山城)에 있는 교룡산성 중수비(重修碑)를 찾기로 했다. 전라북도 남원시 서북쪽에 자리한 교룡산성은 남원의 진산인 교룡산의 정상과 동쪽으로 형성된 계곡을 두른 포곡식(包曲式) 산성이다. 언제 쌓았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인궤(劉仁軌)가 쌓았다고 하고 설인귀성(薛仁貴城)이라고도 한다. 또한 691년 남원소경(南原小京)에 성을 쌓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 말기에 백제가 쌓은 것이 아닌가 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둘레가 1,125보(步)로 군대의 창고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 초기까지도 왜구에 대비한 피난처로 계속 중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때에 승병장 처영(處英) 등이 수축하여 남원읍성과 함께 지키고자 했던 곳이며, 그 뒤 계속 고치고 다시 짓고 하면서 중요한 군사요새지로 유지되었음을 성안에 있는 기적비(紀蹟碑)들이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찾은 비는 전라북도 기념물 제9호로 지정된 교룡산성 중수비로 다음과 같은 비문이 쓰여있다.

"임진년 남원부사 이성한이 교룡산성의 보수에 관한 일을 관찰사 유봉휘에게 보고하자, 관찰사는 이 사실을 상부에 알려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같은 해 9월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지원받아 산성을 수리하고 개축하였다. 계사년 5월에 일을 마치니, 사면으로 개축한 것은 모두 552 뼘(把)이다. 서쪽 문은 고쳤고 동쪽 문은 아취형으로 새로 만들었다(壬辰 府使李聖漢, 以本城修葺事, 報巡營觀察使柳公鳳輝, 狀聞準請. 自同年九月, 劃得耗穀雇軍, 修築. 癸巳五月訖工, 四面改築, 合計五百五十二把, 西門改造, 東門以虹霓新造)" 비문의 끝에 숭정 기원후 86년인 계사년에 이성한이 썼다(崇禎 紀元後 八十六年 癸巳 五月 日, 完山 李聖漢 記)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임진년은 조선조 숙종 38년인 1712년이다. 1712년이면 임진왜란이 일어난지 꼭 두 갑자(甲子)가 되는 해 아닌가. 아마도 부사 이성한은 임진왜란의 치욕을 잊지말자는 뜻에서 다시 만들고 고쳤나 보다. 더구나 남원은 정유재란 때 만여명의 죄없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한 곳이 아닌가. 명(明)나라 장군 양원의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우리는 말없이 죽어간 만여명의 넋을 생각하면서 쓸쓸한 마음으로 생각보다 초라하게 서있는 중수비를 어루만졌다. 남원이 어떤 곳인가? 있지도 않던 춘향이의 사당을 짓고, 춘향이가 이도령과 놀았다는 광한루를 거창하게 짓는 곳이 아닌가? 또 춘향이의 묘지는 얼마나 멋지고 그럴듯한가? 그런 남원의 사람들이 어째서 중수비 하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저처럼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을까? 그나마 이제는 서있는 것조차 지친 듯이 다 쓸어질 듯 기울어 있으니, 중수비를 어루만지는 우리의 손이 어찌 편할 수 있을까?



〈남원 서북쪽 교룡산성 안에 위치한 '교룡산성중수비' 전라북도기념물 제9호로 지정되어 있다.〉

교룡산성을 내려오는 길에 들른 만인의총(萬人義塚)의 묘역은 뒤늦게라도 깨끗이 단장을 한 까닭에 우리들의 마음을 한결 부드럽게 해준다. 만명이 묻혔다는 묘의 크기로 말하면 춘향이의 묘보다 보잘 것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정리해놓고 죽은 박정희 대통령이 고맙기까지 했다. 만인의총 앞에 자리한 충렬사에 경건한 마음으로 분향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안내인은 묘역 왼편에 새롭게 쓰여있는 비문을 가리키며 말한다. 저 비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이라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 비를 마지막으로 박대통령이 죽었으니, 적어도 만인의총에 묻힌 조상들은 죽어서 찾아간 박대통령의 머리를 쓰다듬을 것이라는 안내인 농담에 우리는 그만 피식 웃고 말았다.

전주로 돌아오면서 남관진창건비(南關鎭刱建碑)를 찾아서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라는 곳을 들렸다.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찾아낸 비는 지금의 상관면 버스종점 왼편에 있는 밭언덕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여기저기 성터의 흔적인 듯한 잔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누가 밭으로 변한 이 자리를 성터라 하겠는가? 비문에 따르면, 홍경래 등이 평안도에서 일으켰던 평안도농민전쟁이 막 진압되던 1812년에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한 동어(桐漁) 이공(李公)과 반남(潘南) 박공(朴公)이라는 두 사람이 남고산에 성을 쌓고 진장(鎭將)을 임명해 지키도록 했으며 남관에도 성을 쌓았다. 그러나 그 성의 규모가 완벽하지 못하고, 또 재정의 부족으로 중단된 채 61년이 지났다. 이 때문에 식자깨나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걱정하고 탄식만 했는데, 다행히 고종 때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했던 이호준(樂齋 大爺 李鎬俊)이 이러한 사실을 상부에 알리고, 또한 대원군에게 말씀드려 계유년인 1873년 4월에 남관성을 쌓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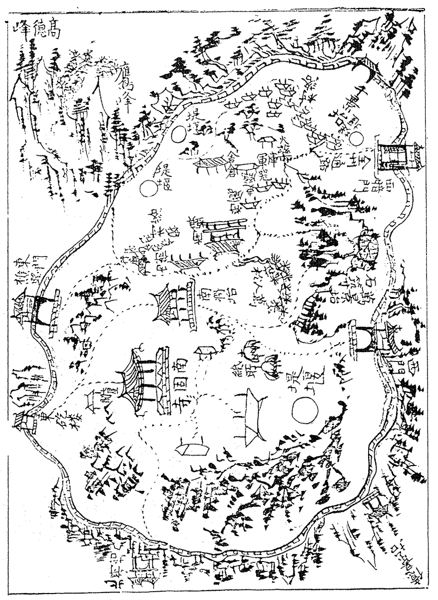
남관성은 지세와 수맥을 살펴서 진장(鎭將)의 관아를 세우고 장대(將臺)와 화포청(火砲廳)을 비롯해 여러 건물과 창고를 세웠는데, 이것저것들을 모두 합하면 백여 칸이나 되었다고 하니 결코 작은 성터는 아니었으리라. 더구나 남관진의 빼어난 지세는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요새로서 중국의 촉도(蜀道) 함곡관(函谷關)과 쌍벽을 겨룰만한 관문으로, 이러한 관문을 조선 왕업의 발상지인 전주에 세웠다는 것은, 비문에 쓰인 말대로, 참으로 성대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桐漁李公, 潘南朴公, 相繼爲本道觀察使, 築城於南固山, 而置鎭將守之, 又築城於南關, 而規模未備, 且財絀未遑. 至今六十有一年, 有識之憂歎, 厥由 久矣. 樂齋大爺李公, 按本道之四年, 具由上聞. 又稟議于大院位, 乃於癸酉四月, 先修南關城譙, 踞南固十里之地. 相陰陽, 觀流泉, 設鎭將之衙, 建儲胥之庫. 將臺 在其南, 火砲廳 在其西, 凡百有餘間矣. 蓋其形便之勝, 殆若天設險阻, 而蜀道秦關 可與爲伯仲者也. 自營造之初, 大爺默運心筭, 不煩不擾, 閱七朔而百務就緖, 遂使千年豐沛之鄕, 奄成一大關防. 嗚呼! 盛矣. 況大爺按節以後, 百度修擧, 政成人和. 寇平仲之雅量, 富鄭公之德望, 爲糊州士民百年尸祝. 則今日嶺湖士民之過此者, 相與之歎息曰 此樂齋李公之功, 其所不諼之思, 豈但爲百年尸祝而已哉! 遂記之于石, 以示後人).

비석에 새겨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남고성의 모습이 꽤나 성대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은 비는 아주 초라하게 서 있다. 중국의 함곡관과 자웅을 겨룰만하다고 자부심을 갖던 남관성의 건물들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저 비석 하나만이 덩그러니 서있는 것일까? 그것도 아주 초라하게. 추수가 끝난 논두렁이에 버려진 허수아비처럼 서있는 남관진창건비는 보는 이의 마음을 안쓰럽게 해준다. 더 이상 보아서 무얼 하겠느냐는 일행의 재촉으로 우리는 남관진창건비를 떠나 전주시 동서학동에 있는 남고산성을 찾았다. 남고산성(南固山城)은 옛날 신라 말기에 무진주(武珍州)에서 일어나 전주 영역에서 왕(王)을 칭했다는 견훤(甄萱)이 처음으로 쌓았다는 성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산세(山勢)나 지세(地勢)로 보아 그 이전부터 성터였을 가능성이 짙다고 한다. '문헌비고(文獻備考)'에 보면 "고덕산성은 전주의 남쪽 7리에 있으며 돌로 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9천9백 20자나 되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산성안에는 우물이 일곱, 시내가 하나 있었다." 고 적혀있다. 또 '동국여지승람 전주부 고적조'에도 같은 내용과 함께 성의 높이가 8자라고 적혀있고, '완산지'에는 둘레가 2천 9백 63보요, 여첩(女堞)이 1천 9백 44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그 규모가 결코 작은 산성이 아니다. 견훤이 호령을 했고, 임진왜란 때에는 이정란(李廷鸞) 장군을 중심으로 수많은 민초들이 똘똘 뭉쳐 전주를 지켜냈다고 하니 결코 작은 성은 아니겠지.

교룡산성중수비 — 삼국말기 백제축조 추정… 포곡식 산성

남관진창건비 — 밭언덕 홀로 외로이 … 성터 사라져

남고진사적비 — 견훤의 옛성터·이정란장군 대승 기록



〈동국여지승람 전주부 고적조에 있는 '남고산성도형'. 신라말기에 무진주(武珍州)에서 일어나 전주영역에서 왕을 칭했다는 견훤이 처음으로 쌓았다는 성이다. 지역의 산세나 지세로 보아 그 이전부터 성터였을 가능성이 높다.〉

성을 한 바퀴 둘러본 다음에 우리는 남고진 사적비(南固鎭 事蹟碑)로 다가 갔다. 이 성의 서문지(西門址)에는 네모반듯이 다듬어진 돌을 쌓아 문벽을 만들고 그 위에 누각을 세웠던 흔적만 남아 있는데, 바로 그 옆 언덕에 서있는 남고진 사적비! 그것을 우리가 보러온 게 아닌가. 비문을 보니, 이 사적비는 1846년(憲宗 12년)에 세워진 것으로 이 산성을 개축한 후 36년만에 산성에 얽힌 사연을 최영일(崔英一)이 쓰고 이삼만(李三晩)이 글을 썼다고 한다.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읽어준다.

"이 산성은 견훤(甄萱)의 옛성터(古城址)로 동남쪽으로 만막관(萬莫關·萬馬關)에 연결된다. 그 옛날 용사지변(龍蛇之變) 때에는 소모사(召募使) 이정란 장군이 성을 지키면서 앞과 뒤에서 적군을 공격하는 기각(犄角)이라는 전법을 써서 강적을 물리치고 다시는 침입을 못하게 했는데, 이것은 오로지 이장군의 귀신 같은 전략에다 천연으로 둘러쳐진 성첩(城堞)의 도움이라 하겠다.

그 뒤 140여년이 흐른 갑인(甲寅, 영조 10년인 1734년)에 관찰사 조현명(趙顯命)은 완산부성을 높이면서 남고산성을 다시 쌓으려고 하다가 임기가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떠났다. 신미(辛未, 순조11년인 1811년)에 이 지방 관찰사로 온 이상황(李相璜)이 전주에 사는 선비와 삼영(三營)의 장수 및 유지들과 의논한 끝에 성을 쌓기 시작했으나, 도중에 전임하게 되는 바람에 그 후임으로 온 관찰사 박윤수(朴崙壽) 때 비로소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 빗돌을 세워 선대(先代)의 위대한 업적을 불후(不朽)로 전하노라(州之南, 有山㠝열如壘, 盖甄城古址也. 其東南連岡疊嶂, 逶亘數百里 卽萬莫關也. 粤在龍蛇之變, 召募使李公廷鸞, 守州城, 設犄角, 使兇鋒不敢家突者, 寔由於神變之籌, 而盖因天設之險矣. 英廟甲寅趙相公顯命, 來守是邦, 增築府城. 功訖. 復圖城, 於此當瓜, 遞而未遂焉. 逮夫純廟辛未, 李相公相璜, 按節察邇, 乃收牧州內章甫及三營將官府老之諸議, 劃策經始, 事幾過半. 翌年壬申, 錦豊君 朴公崙壽, 遵之而告工, 克完固圉贐. 金湯之設, 雖關氣數之會, 抑亦待時而成也. 當時三營將官, 殫竭鳩財, 以障似城. 擬記其事, 備玆貞石. 迄未克成, 于此三紀矣. 今因僉議攸同, 切欲繼往而壽後, 爰記爰刻, 不朽其傳云爾)."

남고진 사적비는 이 고장 출신의 명필 이삼만이 죽기 1년전인 1846년에 남긴 작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비석에 새겨진 글자 하나 하나가 유난히 또렷하고 또 보기가 좋다는 점에서 먼저 본 교룡산성 중수비나 남관성 창건비는 따라올 바가 아니다. 준비가 좀더 철저했더라면, 그래서 탁본이라도 하나 정성껏 떴으면 좋으련만, 사진기 하나 변변이 준비못한 우리에게 어디 당치나 한 말인가. 그저 길게 늘어지는 산자락의 그림자를 밟으면서 내려오는 수 밖에….

〈문화부〉

한국인의 무한에너지, 그 땅에 간다 - (3)통일신라-장보고편

■ 장보고-해상무역도(828~851)
828년 장보고가 건설한 청해진
(지금의 완도)은 신라와 당나라 일본을 잇는
해상교통로의 요지로 삼각무역의 거점이었다.

'96 애틀랜타 올림픽 공식 후원사
Kumkang
Atlanta 1996

바다를 한동이에도
주인이 있는 법이니라!

장대같은 기개로 외래 해적들을 벌벌 떨게 만든 장보고,
그 큰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신문지상이 무협지가 되어버린 세상.
학내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우리 대학인들조차 웬만한 부정한 사건에는
무감각하게 지나쳐버리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천여년전 우리 선조 장보고(張保皐)의
정의로운 기개는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신라시대, 우리 주민들을 인신매매하는 외래 해적들에
분노하여 직접 민군(民軍)일만명을 조직하고
해로의 요충지인 청해에 진(鎭)을 건설한 장보고.
결국 해적을 소탕해내고 동지나해 일대의
해상권을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힘을 제대로 제곳에 쓸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정의로운 기백이 있었기에
정식 관직에도 없는 청해진대사라는 직함을 받았으며,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오늘, 장보고의 그 청청(淸淸)한 기개가 그립습니다.
그 기개가 한국인의 무한에너지로 이어집니다.
우리 대학인의 잠들어있는 무한에너지를 깨워 일으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발걸음-비팔로가 함께 합니다.
outdoor shoe Buffalo

토탈패션의 名家
금강製靴(株)

우리대학, 98년 대학종합 평가 받아

교무부문·재정설비 부문… 간담회 열어 대비사항 작성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이하 평가인정제)시행을 앞두고 98년 10월경에 있을 우리대학 평가사항대비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 20일 멀티미디어실과 교수연구동에서 열렸다.

멀티미디어실에서는 교무부문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고 교수연구동에서는 총무과, 경리과, 시설관리과, 중앙도서관, 전자계산소, 언어교육원, 학생생활관 등으로 나누어서 관련부서 과장·계장·업무담당자 및 행정조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설비부문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평가인정제 대비사항을 결정해 그사항에 따른 연구위원들의 예산책정과 평가분석을 하고 여러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뒤 98년 초까지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고 대교협에 제출하여 98년 10월경에 대교협에서 평가위원회가 파견돼 우리대학에 상주하여 평가를 하게된다.

평가인정제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주기적인 대학의 학사 및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92년까지 5년주기 였던 것이 94년 대교협 산하 대학평가인정위원회 3차회의에서 7년 주기로 변경되고 91년부터 기관평가에서 대학종합평가인정제로 그 명칭도 변경되었다. 평가인정제는 학부 500점과 대학원 100점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인정제는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00년까지 모든 대학들이 대교협의 의무적인 평가를 받고 사회에 공표된다. 인정기준은 많은 연구진과 대학평가기획위원회간의 협의과정속에서 328.3점, 대학원 66.5점으로 제안 6차 대학평가인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우리대학은 94년부터 준비하여 현재 단순자체평가에서 120여점을 확보하고 간담회 대비사항과 더불어 98년까지 준비할 예정이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중화학공업이 활성화되면서 전문인력 수요와 함께 대학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으나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책력 부족으로 인한 대학의 질적향상 목소리로 인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족과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대비사항을 확정하고 행정실무자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합리적인 대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열렸다. 우리대학은 현재 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한태종)가 평가인정제를 준비하고 있고 20여명의 연구위원들이 실무행정들간에 많은 장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이날 10시에는 평가인정제의 교무부문중 우리대학의 교육목적수립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사학과 김종윤, 교직의 한상효, 법학과 진계호 교수가 발표를 가졌다. 이를 기초하여 각 단과대와 학과의 교육과정 전환을 위한 학과장회의가 4시에 교수 연구동에서 있었다.

이와 관련해 기획실 이한선 계장은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결과는 우리대학뿐만 아니라 타대학에도 많은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대학은 생존경쟁체제이며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학구성원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용박람회 버스운행

120여명 참가 의사

취업개발실(실장:김윤섭)에서는 10월 4일과 22일 있는 '한국채용박람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을 위해 버스를 운행한다.

각 1박2일의 일정인 채용박람회는 '96하반기 대졸공채기업 등으로 10월과 12월 공채사원을 모집하는 기업들이 참여해 한국종합전시장(KOEX)대륙관에서 리쿠리트의 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과 우수중견 중소기업·주요그룹 및 대기업 등이 참여해 현장에서 원서접수를 받아 면접 및 상담도 이루어진다.

우리대학에서는 버스 1대를 준비하여 참석할 학생들을 모집중에 있으며 당일날 오전 9시에 출발할 예정이다. 접수자는 현재(18일) 12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의사를 밝혔다.

비오는 날의 수채화! 지난 19일 제8회 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비오는날 민주광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진·글:사진부〉

연구재단 사업 설명회 개최

연구에 관한 제반 사항 발표

'연구재단 사업 설명회'가 학술연구지원과(과장:정기운) 주관, 인문과학·산업경영·자연과학·사회과학·공학연구소 공동주체로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6일에 연구동 8층 세미나실에서 교수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활동 지원기관인 한국학술 진흥재단과 한국과학 재단이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한국학술 진흥재단에서는 권길화(연구지원과장)씨가 한국과학 재단에서는 송충환(연구기획팀장)씨가 각각 연구비지원 계획, 연구비 신청서(연구계획서)작성요령, 연구과제 평가 방법, 연구비 선정 원칙, 연구 결과 심사, 연구활동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우리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많은 수의 교수들이 "연구재단 사업설명회가 매년 계속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EBS, 13회 방송제 가질 예정

가요·풍물·개그제… 예술제 진행

EBS(실무국장:강동균)에서는 제13회 방송제 '천잠인이요, 푸른나래'를 및 제1회 종합예술제를 오는 24일 오후 2시 진리관에서 갖는다.

천잠인의 정서 함양과 대학문화 창달이라는 기조아래 3부로 열리는 방송제에서는 전직대통령 선고공판을 TV 가쉽으로 방영하며 전주 MBC 아나운서 장소영씨가 출연하여 '성폭행 공화국'이란 주제로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또한 공주병, 왕자병을 주제로 한 TV영상기획과 양약, 한약 분쟁을 그린 인형극을 '깨비 인형극'의 협찬을 받아 공연한다.

이어 제1회 EBS종합 예술제는 창작가요제와 풍물제, 개그제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창작가요제와 풍물제는 지난 18일과 19일 그리고 20일에 있었던 예선에서는 가요제 5팀, 풍물제 2팀이 본선진출자가 확정되었다. 한편 본선에서 가요제 작사 부문에 국문과 전규태 교수가 작곡부문은 작곡가 송광식씨가 각각 심사를 보게 되며 풍물제는 도립국악원에서 협찬하여 심사하기로 했다. 각 분과 대상 수상팀에게는 상금 20만원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이와 관련하여 강동균 실무국장은 "예전의 구태의연한 방송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예술제 예선의 경우 홍보와 학생들의 인식부족으로 참여가 적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문화·예술을 극대화시키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학술·문화 체육 한마당 막내려

판굿·강령탈춤·초청강연 등 가져

총학생회(회장:김대윤·이부경영·4)의 주최로 제1회 학술 문화 체육 한마당이 지난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학내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문화부문은 천지울림의 판굿이 "껍데기는 가라"라는 주제아래 16일 민주광장에서 진행되었고 18일에는 강령탈출공연이 탈패말뚝이의 정기공연으로 민주광장에서 있었다. 영화제도 음악감상실에서 12시, 2시 2회상영으로 17일에 '축제'와 '학생부군신위', 18일에는 '낮은 목소리', 19일에는 '달과꼭지'를 상영하였다.

학술부문에서는 17일 진리관에서 정한용 국회의원의 "탈렌트에서 정치인으로, 국회에서 정한용의 세상보기"라는 제목아래 초청강연이 진행되었고 19일 민주광장에서는 안도현 작가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왜 사는가?'라는 삶의 본질과 존재가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케하는 문학의 밤을 개최하였다. 또한 즉석에서 안도현 시인의 싸인이 들어있는 '연어'와 학술문화 체육 한마당 기념 T셔츠를 방청객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체육부문은 9월 16·17일 양일간 길거리 농구대회가 1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소운동장에서 개최되었고 축구대회 또한 농구대회에 이어 18·19일 7개 단과대표팀이 참가한 가운데 소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농구대회의 1등팀은 농구화 4컬레, 2등팀은 농구공 4개를 시상받았고 축구대회의 1등팀은 축구화 11컬레, 2등팀은 축구공 5개를 시상받았다.

개교32주년 동문음악회 가져

테너독창등 화합과 음악발전 일익

우리대학 총동창회의 주최로 '개교 32주년기념 제5회 음악과 동문음악회'가 오는 9월 24일 7시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대학동문의 화합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의 음악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이번 음악회는 총 6개부문의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노윤배 외 5명의 금관 5중주 Brass Quintetf가 연주되고 이종석의 테너독창이 L'Arlesiana 중 lamentto di Federico로 있다. 또한 김성택의 첼로독주가 Kol Nidrei로 연주되고 최병준의 오보에 독주 Sonata for Oboe and Piano가 있으며, 이정재의 피아노독주 및 백승구 외 4명의 현악 4중주도 구성되어 있다.

전국고교 음악경연 대회 개최

지난 18일 제 18회 전국고등학교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음악인의 저변 확대와 예술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이번대회는 61개교 135명이 참가하여 16개부문 35명이 입상했다.

이날 성악과 피아노부문에 70여명이 참가 최고의 경쟁을 나타냈다.

피아노부문 금상자 방영아를 비롯해 박근애, 우상임, 김소연, 이원장, 이미진, 정신인, 김현석, 장상윤, 송미진, 양영아, 유기광, 임세은, 차정순, 정은영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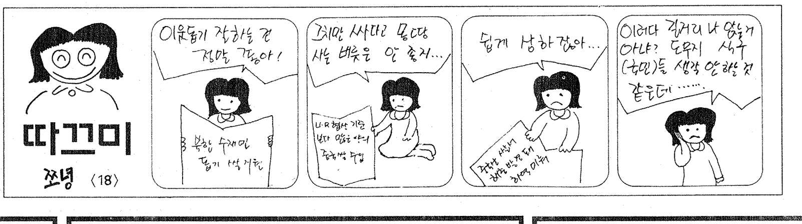
법학과, 형사모의재판 열려

치과의사 살인·OJ심슨재판 각색

법학과(학생회장:노승우·3)에서는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과 '미국의 OJ 심슨 사건'을 배경으로 각색한 '제16회 형사모의재판'을 오늘 23일 10시에 진리관에서 갖는다.

지난 81년 부터 이어져온 '96법학과 학술제'의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는 총 17명이 재판에 출연하여 법학과 교수들의 도움과 함께 재판장 3인, 변호사·검사 3인, 증인 5인, 서기·교도관 2인, 피고인 1인 등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에 관련하여 연출을 맡은 법학과 양기춘군은 "이 사건이 세간에 떠들썩한 사건이었고 이것을 재편집하여 우리 학생들이 검사·변호사·재판장이 되어 이제까지 배워온 것들과 함께 이 사건을 나름대로 판단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돌려보는 세상

교수임용에도 '보안법' 족쇄라니

국내에서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대학 강사가 교수·학생들의 추천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례를 선고받은 사실이 임용결격 사유로 작용해 학교쪽으로부터 임용을 거부당했다고.

이에 한 국민 왈 "이번 연세대 사태의 관련 학생은 앞으로 기업체에서 취업을 시키지 않아 생존권을 위협한다 하더니 드디어 그 본보기를 보이시나 보군요.
먹고 살라면 나라님의 말에 고분고분허니 잘 따라야 지요. 우리같이 힘없는 민초들이…"

다음번엔 내꺼야(?)

지난 19일 김대중·김종필 총재가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오랜만에 만난 3김이 할 말이 참 많을텐데. 김대통령 중남미 방문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날 회동에서 순방 결과, 무장공비, 경제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다데. 김대중 총재가 김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웃으면서 청와대 주인은 내꺼라는 듯.

언론의 편파보도(?)

최근 경기도 동두천 미군기지 주변에서 다시 우리나라 여성이 주한미국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보도하거나 묵살하는 보도양태를 보였다는데.

한총련 사태때 전경이 죽었을 때에는 난리가 나기라도 한듯이 연일보도를 하더니 이번에는 우리나라 여성이 미군에 의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니 그 여성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

예의 좀 지킵시다!

요즘 강의시간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천잠인들이 눈에띄어 알아보니.

천잠인들이 강의시간에 껌을 씹거나, 음료수를 마시거나, 강의시간에 돌아다니거나, 다른 수업시간에 문을 열어 수업을 방해하는 등 강의에 어긋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 스승의 그림자를 밟는 시대라 할지라도 학생으로서 교수님에 대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마저 망각한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일은 아닐까?

대학은 자유통제 지역?

·경찰이 최근 각 대학에 경찰력을 들여보내는 것과 관련해 부산대 교수들이 처음으로 공권력 남용에 따른 대학자율권 침해라며 강도 높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고.

이에 한 경찰 왈 "뭣이라고? 공권력 남용? 이렇게라도 안해 빨갱이가 판치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유비무환의 자세도 모르오? 미연에 방지해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살기좋은 내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소. 다 나라의 평정과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자율이니, 자유와 권위 침탈이니 하는 어리석은 소리 하지도 마시오."

4학년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졸업사진(학사모)을 찍으시고 액자를 신청하신 분들중 아직까지 필름확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9월25일까지 필름확인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름을 확인하지 않아 대학앨범 편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이점 양지하시고 졸업준비위원회에 오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름 미확인자명단은 도서관 게시판에 게시함.

일시:9월 25일까지 오후 5시까지

졸업준비위원회

개국 13주년 기념

제13회 방송제 & 제1회 종합예술제

매년 야심찬 기획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천잠벌에 화제를 몰고 왔던 방송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방송제
- 공주병, 왕자병
- 한약분쟁－인형극
- 영상음악
- 빠떼루아저씨의 레슬링 생중계

종합예술제
- 창작가요
- 풍물
- 개그

이 가을 천잠벌 최고의 문화생사인 방송제&종합예술와 함께 멋진 추억 만드세요.

언　　제:96년 9월24일 늦은 2시
어 디 서:진리관에서
입 장 료:원래 없음
초대손님:1. MBC에서 맹활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뜨고, 있는 신세대 개그맨 김 철 민
2. 저희 방송국 출신의 미모와 지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전주 MBC의 장 소 영 아나운서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 EBS

전북대학교 영자신문사 The Companion 주최

English Essay Contest

참가대상:전북지역의 모든 대학생
응모기간 : 1996. 9. 16～10. 19
제 출 처 : The Companion편집국
응모분야 : a) Essay
b) Review(서평, 영화평 및 연극평등)
주　　제 : 자유주제)A4용지 2매 이상)
발　　표 : 10. 28예정
상　　금 : 최우수상 － 300,000원
가　　작 － 100,000원

삶이 담긴 책

세계화가 거역할 수 없는 추세라면, 그래서 이제는 외국어 한 두 개쯤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 움추리지 말고 대담하게 외국어로 된 책 한두권을 찾아서 읽어 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전히 영어로 쓰여진 책으로 Chongik Rhee, Korea: A Changing Nation in a Changing World(jeonju University Press, 1966)을 한 권 읽기로 하자.

이 책은 특별한 주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변화하는 나라로 자리를 잡아가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인에 관련된 글들을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영어공부를 하기에도 아주 좋은 책이라 할 수 있다. 마침 지난 6월 19일자 The Korea Times에 게재된 책안내(Book Guides)기사가 있어서 그대로 옮기기로 한다.

〈엮은이 밝힘〉

Editorials for The Times Mirror Korea in A Changing World

Dr. Rhee Chongik, president of Jeon-ju University in Chonju City, Cholla-pukto,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Korea Times for nearly two decades, first as a regular columnist and later as a guest editorial writer. He wrote editorials · for the English-language newspaper from the middle of 1991 to the beginning of 1993, the period between his terms as president of Chongju University in Chongju, Chungchong-pukto, and president of Jeonju University.

During the time when Dr. Rhee was writing editorials for The Times, the world was changing fast following the end of the Cold War era, which was being replaced by a time of regional conflicts and fierce trad wars. On the domestic scence, the long period of authoritarian military rule was coming to an end.

Then the ruling party merged with two opposition parties and Kim Young-sam was elected president with the backing of the new government party riding on the people's desires for democratization under stability.

Thus, Dr. Rhee never wanted for good topics for his editorials. Twice each week, he commented on the current state of world affairs form the Korean standpoint, not solely in pursuit of Korea's national interests, but from the position of seeking peace and the well-being of mankind, ultimate values held by The Korea Times or any orther conscientious international mass media.

Dr. Rhee has just published a 500-page book putting together nearly 240 editorials he wrote for The Times. They are arranged into two parts-the international Vies and the National Vies. The former is divided into four chapters with comments on major international issues and events and views on South Korea's relations with North Korea, Japan and other Key players in world politic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latter category consists of writings on national politics, business, education, the environment, social ills and others.

Dr. Rhee, as an editorial writer wqtched 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s form the viewpoint of change, a change that was forced upon Korea and the rest of the globe becauce of their complex relationships, political, economic and ortherwise. He noted how the one country that refuses to change, North Korea, fell to the bottom of the ladder.

Dr. Rhee, who after graduating from Yonsei University, went on to graduate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first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and then at New York Univesity where he received a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obviously loves democracy. He wrote warmly of the anti-corruption drives of young politicians, but he has no sympathy for student activists who still continues to disrupt society after the demise of military rule.

The author hopes that since artiles in the book are not limited to any particular subject area, but deal with all societal and national issues, foreign readers will find the book helpful in understanding Korea and Koreans in general.

He said he is also interested in seeing young students read the editorials as a means of learning contemporary English as they deal with subjects they are familiar with and have an impact on their own lives and country.

◇연극 '리젤'을 관람하고

여자도 떳떳하게 설수 있기를

'친구야 내 얘기좀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시작인 리젤의 인생이야기는 생을 힘들게 붙잡고 버텨온 한 여인의 아픈 사연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속고 무너지고 파괴되어가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었어. 그것 이외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본질적인 이유는 여자이기에 포기해야 했던 희망.

사회에서 요구하는 남·여의 차별.

거부할 수 없었던 남자의 폭력.

그것에 점점 파괴되어가는 슬픈 여인.

'친구야 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나의 세번째 남자. 너무나 사랑했기에 몸을 팔아가며 그의 뒷바라지를 했어.'

그녀는 결국 또 다시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만다.

그는 그녀에게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오길 요구했고, 그녀의 반항에 윤간으로 대응한다.

그녀는 윤간하는 짐승들 속에서 스쳐가는 얼굴들을 보았다.

'첫번째 남자, 두번째 남자, 세번째 남자, 어머니, 오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외치는 순간에 그녀는 쓰러지며 천장으로부터 쇠사슬이 쏟아져 그녀의 주위에 쇠창살을 만든다.

그녀를 가두었던건 사회의 모순이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고 말했던 아버지.

어머니로 하여금 끊임없이 약을 먹을 수 밖에 없게했던 아버지.

나이어린 여자를 집으로 들여 잘 살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 사회의 모순임을.

결국 리젤은 무너지고, 어머니는 멍한 하늘을 바라보다 죽어갔다.

리젤은 말했다. 관객을 향해 조용하지만 진지하게

'친구야 명심해 인생은 그렇게 쉽진않아. 사람을 다 믿지는 마.'

나는 여성해방론자는 아니다.

살아가며 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계라는 것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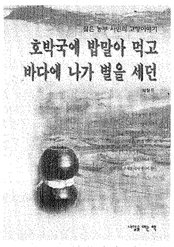
남자를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우리의 어머니들과 당연한듯 여자의 희생을 바라는 아버지들의 전철을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이다.

여자도 스스로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

희망을 버리는건 심장을 버리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김연이 (회계학과·조교)

새책소개



호박국에 밥말아 먹고
바다에 나가 별을 세던
박형진 지음
내일을 여는 책
값 6천5백원

일과 놀이와 음식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조화를 이루었던 거칠고 질긴 우리들의 고향을 찾아가는 젊은 농부 시인의 절박한 이야기는 참된 행복의 가치와 삶의 근본 문제를 다시 생각케 한다.

박형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는 시인이다. 저마다 멋과 재주를 뽐내는 세상에서 그가 지닌 것은 정직성 뿐이지만 기교를 모르는 그의 첫 시집은 이미 상당한 평가를 받았다. 계산속이라고는 없이 말 나오는 대로 쓴 것 같은 그의 산문에는 묘하게도 맑은 신선함과 속깊은 울림이 있다.

박형진의 고향이야기는 시종 눈물과 웃음을 부르는가 하면, 날마다 그가 앞세우고 걷는 암소의 걸음걸이를 닮아서 질박하고 참답다. 이 참다움은, 고향의 막막한 현실속에서 술과 함께 괴로울지언정 그가 한 순간도 자기 몸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성실한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작은얘기

고향가는 길

교통체증의 힘든 고향길일지라도

드디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팔월 한가위가 몇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뿐 고향을 어떻게 가야 할런지….

이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진다. 사실 우리나라는 명절때만 되면 고속도로건 일반도로건간에 심한 교통체증으로 고향가는 길을 힘들게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고향을 가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고향에는 부모의 곁을 떠나 타향에 살고 있는 자식들을 손꼽아 기다리는 늙으신 노부모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민족의 특성상 명절때 고향에 가지 않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고향가는 길을 겪었어도 고향에 도착하면 언제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를 망각하고 만다. 그 이유는 고향에 가면 왠지 모를 포근함과 이루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것들이 주위를 감싸기 때문이다.

또 오랫만에 보는 가족, 친지들간에 이야기하면서 친목도 돈독해진다. 함박 웃음도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고생을 하면서도 고향을 가는 것이다. 고향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지만 않다면 다음부터는 고향을 즐겁게 찾게되고 좋은 인상으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고향을 찾는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고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한층 생길 것이다.

권봉근 (행정·1)

여유로움과 편안함의 길

시간은 더디게만 간다.

더위가 가시지 않은 초가을의 날씨 또한 날 참을 수 없게 한다.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게 길게 늘어선 차들. 매년 이맘 때 쯤이면 고속도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움직이지 않는 차안에서 잠이라도 청해 보려 눈을 감아보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다.

전주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나는 한달에 한 두번 정도 이 길을 통해 고향집에 내려가곤 한다. 난 이 길을 좋아했고 이 시간을 즐겼다. 아무 생각없이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꼈고 들판의 농부의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다.

그러나 오늘 같은 날이면 오히려 망설여진다. 일년에 한 두번 정도 찾아오는 손님(?)들로 인하여 도로 곳곳이 정체되기 때문이다.

바쁜 현대인인 그들은 이 길이 주는 느낌을 알까?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길은 단지 짜증스럽고 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일 뿐일 것이다.

그들이 고향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모르나 이 길이 주는 여유로움과 편안함은 모를 것이다. 고향 가는 길의 진정한 기쁨을. 한번쯤은 권해 보고 싶다. 손님(?)이 아닌 자식으로서 찾아오는 고향길의 또다른 새로움을.

박순주 (행정·1)

다음제목: 추억속으로 원고매수 : 3매 마감일: 10월 17일(목)

시

어느 가을날의 고백

이현정 (전자계산소·직원)

푸른 하늘이 묻어나는 곳에서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내리쬐는 햇살도 따사롭고,
푸르른 초원에 누워 수수히 피어오른 들국화 향기를
맡으며 그리운 이를 그리워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란 고귀한 그 말 한마디
너무도 고귀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못해주었던
그대만의 밀어로 남겨둔채로 이렇게 가을날의 햇살은
내 그리운 이를 더욱 그리도록 합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내 방황의 몸짓은 눈물에 그쳤을 것을
그대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모든이의 신께
감사합니다.

그대는 내 사랑이 되어 주지는 않았지만,
가을의 정취가 살포시 스며들고 마는 서정의 계절입니다.
내 그대를 예전에 그리워 했던 적 있었던가요?
그리움! 내 홀로 쌓아놓은 돌탑처럼
홀로 아무도 모른채 숨겨둔 한송이 꽃입니다.

이제 그리운 향기 그대에게로 다가가 그대 역시
날 그리워하는
그리하여 무모히 좇게하는 사랑의 묘약으로 변하게 하소서.
난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가을 아침의 맑디 맑은 이슬에 비친 그대의 모습은
햇살이 쬐는 대로 내몸에 스며들고,
저녁 노을질 무렵 내 심장을 휩쓰는 그리움으로 변해
어둔밤 그대의 꿈을 꿉니다.

향기로운 그대의 체취를 맡으며
그저 곁에 있는 꿈의 시간들에서도
내 뛰는 심장소리는 가파오고,
그대를 향한 그리움이 피어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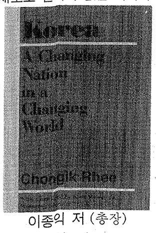
그대는 나를 사랑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대는 나의 행복입니다.
그대는 나만의 그리움이 되어 주지 않아도
그저 그대 마음 한구석 좁고 어두운 곳이어도 좋습니다.
내게는 밝은 태양같은 빛이 있으며,
그대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가을의 정취속에서도 그대가 느껴집니다.

오늘의 꿈속에선
그대 어깨에 살포시 어떤 소녀가 기대어 있습니다.
그대를 몹시 사랑하는 소녀가
하늘의 축복 속에 따사로운 가을의 정취를 마시며…

'96 2학기 대학 출판부 신간 안내

Korea : A Changing Nationin a Changing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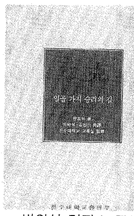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정립하기 힘든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케 할뿐 아니라 영어공부의 교재로도 손색이 없는 책이다.



이종익 저 (총장)
499면/신B5/₩12,000

七克(일곱가지 승리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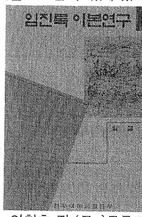
기독교적 수양과 인간관을 제시해준 책으로 당시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기독교의 고전.



박완식·김진소 공역
324면/신B5/₩9,000

임진록 이본 연구 I.II.III.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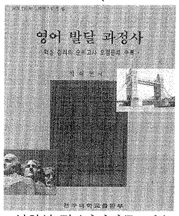
'임진록'의 전체 내용을 계열별, 이본군별, 이본별, 이야기 단락별로 개별번호를 부여하여 앞으로 이 작품의 연구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임철호 저 (국어국문교수)
465면/신B5/₩각권12,000

영어발달 과정사 -핵심정리와 순위고사 요점문제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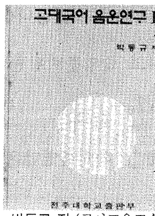
영어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살펴봄으로써 현대영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



석희선 저 (영어영문교수)
231면/4×6판/₩7,500

고대국어 음운 연구 I

고대국어 음운체계의 한부분을 이루는 초성자음체계의 연구및 기존의 학설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박동규 저 (국어교육교수)
264면/신B5/₩신 10,000

■ 판매 : 구내서점, 홍지서림 ■ 문의 : 대학출판부(☎ 220-2189)

전 주 대 학 교 출 판 부